

성경 통독이 성도의 설교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무학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 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강경태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6년 5월

Copyright © 2016 Kyungtae Kang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A Study on Bible Tongdok in the Comprehension of Sermon: A Case Study of Moohak Church, Seoul, Korea.

Kyoungtae Kang

Moohak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Bible is the great words of God which transform the hearts of people. Paul confesses that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a useful book, which transforms people's life. It is a powerful word spoken to us by God. John said blessed is the one who reads, hears, and take to heart the word of God. When we read the Bible, we become understanding the will of God, and when we take the word to our heart we experience the work of God.

In Korea, we find people who strive to read the entire Bible from Genesis to Revelation, intensively in short period of time, within 48 hours or a week, in order to learn about the Bible. One of the leading method of reading the Bible through is "Bible-tongdok" which is a useful tool to understand and learn about the words in the Bible. In fact, for a long period of time, Bible reading has been done through westernized methods. The Bible was studied and analyzed in parts. Certainly, it has been a big help in understanding the Bible and discovering the will of God. However, much has also been lost due to misleading or erroneous Bible reading methods.

This project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Bible-tongdok on the faith formation of congregation in the process of comprehension of pastor's sermon Through Bible-tongdok along with its contribution to the understanding of sermons, Moohak Church experienced

rectification of the view of faith, and took a step forward from having fragmentary faith to having holistic faith. Also, by witnessing the work of God displayed in the Old-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we understood the desire and the will of God, and discovered our present duties.

## 국문초록

성경 통독이 성도의 설교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강경태

무학교회, 서울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며, 또한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익한 책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말씀이다. 요한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지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48시간 또는 1주간 동안에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내용을 알아가고자 힘쓰는 광경들을 보게 된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휴가나 월차를 사용하여 참여하기도 하고, 방학중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모임에 참여한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자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렇다면 성경통독(Bible-tongdok)이라는 성경읽기 방법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유익한 방법인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서양적인 방

법으로 성경읽기가 이루어져왔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물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많은 도움도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왜곡되거나 잘못된 성경읽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도 많았다.

이 논문은 성경통독이 목회자의 설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신앙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무학교회는 성경통독을 통해서 신앙적 관점이 수정되고, 부분적인 신앙이 아니라 통전적인 신앙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다. 또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창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현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다.

## 목 차

표 목차 .....	ix
I. 서론 .....	1
문제제기 .....	1
연구의 의의 .....	4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II. 성경통독의 이해 .....	7
성경통독의 성서적 배경 .....	7
성경통독의 역사적 배경 .....	10
III. 성경통독의 본질 .....	22
성경통독의 요소 .....	22
성경통독의 5가지 시선 .....	28
IV. 성경통독과 설교 이해 .....	33
통전적 이해 .....	33
맥락적 이해 .....	38
상황적 이해 .....	40
실천적 이해 .....	42
관계적 이해 .....	43
V. 프로젝트 실행과정: 무학교회 .....	45
프로젝트의 순서 .....	45
설문 및 분석 .....	48

전체 평가 .....	60
VI. 요약 및 결론 .....	63
요약 및 평가 .....	63
결론 및 제언 .....	64
부록 .....	66
참고 문헌 .....	87



## 표 목차

<표1> 총 성경 통독 횟수 .....	53
<표2> 2015년 성경통독 횟수 .....	53
<표3> 성경통독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	54
<표4> 성경통독과 설교 이해도 .....	55
<표5> 2015년 성경통독 횟수와 제국의 이해도 .....	56
<표6> 제국과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연결 이해도 .....	57
<표7> 성경통독 후 성경과 설교에 대한 이해에 대한 자유 의견 정리 .....	58
<표8> 설교를 듣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태도와 행동에 대한 서술 .....	59
<표9> 삶 속에서의 실천 .....	59

## 제 I 장

### 서 론

#### 문제제기

성도들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듣는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새벽기도회, 수요일기도회, 금요일기도회 등 설교를 듣는 기회가 많다. 또한 기독교 TV 채널이나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설교 말씀을 듣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들의 설교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한 조사에 의하면 ‘설교를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은 ‘나 자신의 주의 집중력 부족’ (46.56%), 둘째는 ‘흥미 없는 설교 내용’ (24.43%), 세번째 ‘어수선한 주위 환경’ (17.73%), 네번째가 ‘설교자의 불분명한 태도’ (9.92%)이고, 마지막으로 ‘무응답’ (1.52%)으로 조사되었다.<sup>1</sup>

설교를 듣는데 방해되는 첫 번째 요소가 설교를 듣는 성도 자신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흥미가 없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한 재미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의 이해가 부족하기에 성경의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말씀보다는 재미 있는 예화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일 때가 있다. 설교를 듣고 나서도 성경의

---

<sup>1</sup> 송기태, “평신도들의 설교 수용태도 분석(II),” *목회와 신학* 27 (1991), 89.

말씀은 기억도 못하고, 예화나 재미있었던 이야기만을 기억하고 있을 때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대개 성도들은 설교자의 메시지 내용의 세부사항을 축소화 또는 단순화하거나 모두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설교의 세부내용을 무시한 채 전체 내용을 얼버무려 설교의 요지만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메시지를 해석하려고 든다고 한다.<sup>2</sup>

그렇다면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성경에 대해 과편화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sup>3</sup>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성경구절 하나 또는 하나의 사건 등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다 보니 전체를 보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알게 된다.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을 분리해서 내 입맛에 맞추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 성도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이해되는 부분들은 수긍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부하기도 한다. 둘째는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생각이 고립되어 이해한다. 성경은 하나의 사건이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연결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단절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나 고립된 이해를 가진 성도들은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옛 언약 지나간 언약으로 치부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소홀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셋째, 많은 성도들은 신앙이 교리화되어 설교를 교리적으로 이해한다. 예를

---

<sup>2</sup> Donald T. Campbell, "Systematic Error on the Part of Human Links in Communication Systems," *Information and Control* Vol. 1. No. 4, 342.

<sup>3</sup>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통독원, 2009), 159-161.

들어보자 한국교회에서 기복 신앙은 이미 교리처럼 여겨지고 있다.<sup>4</sup> 그러기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어떤 교리화된 공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공식이 이어져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라는 교리적 신앙이 뿌리깊게 박혀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전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교리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선 얼마든지 성전을 파괴하실 수 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성도들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성도들이 지식적인 면에서는 점점 커져가고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더욱 많아진 이 시대에서 말씀을 듣고 삶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말씀이 부딪혀 올 때에 말씀을 붙잡고 씩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그 교회와 사회는 분명달라질 것이다. 유진 피터슨은 “영성이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해 계시하시는 모든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 낼 수 있는 것들이다.”<sup>5</sup>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마스크를 통해서 기독교인 유명인사나 목회자가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광경을 쉽게 보게 된다.

다섯째,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며 그 설교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에게

---

<sup>4</sup> 민종기, “교회안의 기복신앙을 청산하라,” *목회와 신학* 126 (1999), 70.

<sup>5</sup> Eugene H. Peterson, *Christ Plays in Ten Thousand Places*, 이종태 역, *현실, 하나님의 세계* (서울: IVP, 2006), 26.

얼마나 적용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어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신학은 개인의 구원론을 중심으로 체계지워졌기에 개인의 종교적인 삶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진리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sup>6</sup> 나 자신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것에 가장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공동체의 소속함 없이 주일 예배드리며 설교를 듣고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고 어느 누군가와와의 관계속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공동체속에서 관계를 갖으며 또한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가정적이고 민족적이고 모든 민족적이어야 한다.<sup>7</sup> 성경이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해 주신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 내 가정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 연구의 의의

이 논문의 의의는 통(通)의 구체적 방법론을 성경 읽기에 적용하는 성경통독<sup>8</sup>을 통해서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발전적 신앙으로 나아감을 보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는 성경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통전적이라는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고, 분리되어 있는 객체들 속에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공통 특성을 찾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양 극단을 유기체적인 입장에서 서로를 아우르고, 여러 각도에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sup>9</sup> 둘째는 성경통독을 통해서

<sup>6</sup> 송계근, “언약적 관점에서 본 기복신앙의 위험성,” *목회와 신학* 126 (1999), 81.

<sup>7</sup>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4), 7.

<sup>8</sup>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통독원, 2009), 169.

<sup>9</sup> *Ibid.*, 89-99.

고립된 이해가 아닌 맥락적 이해가 주어지는가? 칼빈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sup>10</sup>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계시하신 것이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으로 정경화 되는 오랜 역사속에서 한권의 책으로 주어졌다. 성경은 서로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셋째는 성경통독을 통해서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상황적인 이해가 이루어졌는가? 성경에 말씀은 역사속에서 주어졌고, 그 당시의 상황속에서 주어진 메세지이다. 이것을 이해할 때 말씀을 더욱 바르게 이해할 것이다. 넷째는 성경통독을 통해서 이론적인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이해로 나아가고 있는가? 바른 성경 이해는 행동이 뒤따르고 삶의 변화를 이끈다. 다섯째는 성경통독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해를 벗어나 관계적인 이해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경과 설교를 더욱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를 의존하나, 조병호의 통(Tong, 通)신학적 성경통독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통(Tong, 通)신학적 성경통독이란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 역사순으로 읽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으로서 전체를 여러 차례 읽어 가는 가운데 마침내 직관에 이르는 성경읽기방법이다.<sup>11</sup> 연구의 범위는 무학교회의 성도들에게 성경통독후에 설문을 통해서 설교 이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발전적인 모습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 1장은 서론으로 문제제기, 연구 의의, 방법과 범위

<sup>10</sup> 이형기, *종교개혁사상사(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84), 302.

<sup>11</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 신학* (서울: 통독원, 2008), 22-28.

를 다루고 있다. 제 2장은 성경통독의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성경통독이 성경의 근거를 둔 성경읽기 방법임을 밝히고, 역사적인 배경속에서 어떻게 성경통독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소개한다. 그리고 성경통독의 중요한 요소를 제시한다.

제 3장은 조병호의 성경통독의 본질 5가지 시선을 다룬다. 제 4장에서는 조병호의 통 신학적 성경통독방법이 성도들의 설교이해에 어떤 발전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이려고 한다. 통전적 이해와 맥락적 이해, 상황적 이해, 실천적 이해, 관계적 이해의 발전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시한다. 제 5장에서 무학교회의 성도들에게 설문을 조사한 후 성경이해와 설교이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제시하고, 제 6장은 결론으로서 종합한다.

## 제 II 장

### 성경통독의 이해

#### 성경통독의 성서적 배경

##### 구약의 성경 읽기

구약성경에서 ‘읽는다’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קרא(카라)이다. 이 단어는 ‘부르다’ (call; 창12:18, 27:1, 39:15, 18; 왕하7:11), ‘부르짖다’ (Cry), ‘선포하다’ (proclaim; 창41:43; 신15:2, 렘31:6; 레25:1), ‘설교하다’ (Summon; 창12:18,20:8,9; 사8:1), ‘크게 읽다’, ‘낭독하다’ (Read aloud; 렘36:8,14; 느8:3,8; 9:3; 대하34:18)등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된다.<sup>1</sup>

‘읽다’, ‘낭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말씀의 두루마리나 율법책을 큰 소리로 회중앞에서 읽거나 낭독할 때이다(렘36:6, 8, 14, 15; 느8:3,8; 대하34:18,24; 출24:7; 왕하22:10; 왕하5:7; 사29:11,12). 둘째는 말씀의 두루마리와 율법책을 자신 스스로에게 읽을 때이다(신17:19; 느 8:18; 합2:2; 왕하22:8; 사34:16).<sup>2</sup>

그러기에 구약성경의 ‘읽다’, ‘낭독하다’의 קרא(카라)는 개인적으로 읽는 것과 회중앞에서 낭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직접 돌에 새겨 주셨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광야생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하나님

---

<sup>1</sup> Francis Brown & Edward Robinson, *The New Brown-Driver-Briggs-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MA: Hendrickson Pub, 1985), 894-895.

<sup>2</sup> Ibid., 895.



말씀을 배우도록 가르친다. “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출24:7).” 또한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매 칠년 면제년에 자녀들에게 낭독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모세는 율법의 말씀이 반드시 현 세대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임혀지고 들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한 후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한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수8:34-35).” 여호수아는 모든 회중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두가 듣도록 모세의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한다.

또한 왕정 500년의 기간동안에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그가 여호와와 성전 수리를 명령하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는다. 왕은 율법책의 말을 듣고 회개한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사반이 읽어줄 때 그것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호와 앞에 겸비하면서 통곡과 회개가 일어났다(왕하22:10; 19).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한지 일곱째 달에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을 수문앞 광장에 모이게 하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회중 앞에서 읽어준다. 그 때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다(느8:5-9).

하나님께서 하신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달라짐을 보게 된다.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와 통곡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 신약의 성경 읽기

신약성경의 ‘읽는다’ 단어인 ἀναγιγνωσκω(아나기노스코)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는 ‘구분하다’, ‘인식하다’, ‘인정하다’, ‘정확하게 알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두 번째 ‘읽는다’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대부분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사용된다. 먼저 구약성경 또는 글을 개인 스스로가 읽는 것이다(마22:31; 마 12:5, 21:42; 눅 6:3; 요19:20; 행8:28, 30, 32; 고후 1:13; 계1:3, 5:4; 막12:26; 눅10:26; 마19:4; 막2:25; 마24:15; 막13:14; 행15:31; 23:34; 엡3:4; 고후3:2). 다음은 구약성경 또는 글을 회중에게 크게 읽는 것이다(고후3:15; 행15:21; 눅4:16; 행13:27; 살전 5:27; 골4:16).<sup>3</sup>

예수는 구약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 의미와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눅2:46-47).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의 선생들과 묻고 대답할 만큼 지혜가 있으셨다. 그리고 늘 구약성경을 읽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눅4:16)”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는 복음서 말씀가운데 10분의 1이상이 구약에서 인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네 복음서에 예수의 말씀을 다룬 1800개의 구절가운데 180구절이 구약을 직접 인용하거나 그와 관련된 것이다.<sup>4</sup>

사도시대에 이르러서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가운데 반 가량이 구약을 인용한 것이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행한 설교는 23개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구절이 구약의 인용이다(행2:114-36). 스테반의 설교는 48구절로 되어 있는데 본질

<sup>3</sup> Joseph Thayer & James Strong,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1889)

<sup>4</sup> H. L. Wilmington, *Wilmington's Guide to the Bible*, 박광철 역, *종합성경연구III*(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484.

상 그 전부가 구약의 인용이다(행2:2-50). 바울의 첫 설교가 사도행전 13:16-41에 모두 26개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5개 구절이 구약에서 인용한 것이다.<sup>5</sup> 사도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계1:3) 라고 선포한다. 신약시대에 새 이스라엘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상고한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성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구약성경 이사야의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셔서 성경을 풀어주고 깨닫게 한다(행8:27~32).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행17:1). 베뢰아 사람은 바울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한다(행 17:11). 바울은 성경을 풀어서 복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성경의 말씀을 강론하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갖추도록 가르쳤다.

## 성경통독의 역사적 배경

### 유대 전통의 성경읽기

유대 전통의 성경읽기는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회당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바벨론으로 추방된 유랑민들은 이제부터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행할 수가 없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모이기 시작하였고 이 모임에서 그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를 되새기며 율법을 다시 수집하였다. 이러한 일이 바탕이 되어서 회당이 생기게 되었다.<sup>6</sup> 당시 보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고국을 멀리 떠나 있어 성전이나 제단을 갖지 못하였다. 특히 안식일이나 축제일이 되면

<sup>5</sup> Ibid., 484.

<sup>6</sup> Werner Forster, *From the Exile to Christ*, 문희석 역, *신구약 중간사* (서울: 키클디아사, 1985), 26.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렸다. 포로 기간에 유대인들은 기도하며 저들의 교사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모인 것이 명백하다(겔8:1; 14:1; 33:30).

유대인의 회당은 종교적 모임이요, 사회적 모임 장소로도 사용되었고,<sup>7</sup>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학교이며 교회이며 또한 특수한 유아소이며 아동 보호소였다.<sup>8</sup> 회당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였다. 특별히 그 교육의 주 교재는 성경이었다. 유대 민족의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교육의 중심이 되었고, 율법은 교육의 바탕이 되었고, 포로 이후부터는 교육의 장으로서 회당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sup>9</sup>

유대인들은 토라의 본문을 54개의 파르시웃(단락)으로 나눠 매주 회당에서 하나씩 읽음으로써 1년에 한 번 완독했다. 또 토라를 완독하는 날 ‘심חת 토라(Simchat Torah)’ 라고 불리는 특별한 축제를 가졌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명절로 삼아 토라 두루마리를 들고 회당을 한 바퀴 돌며 완독을 기념하는 잔치를 벌인다.<sup>10</sup>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해석하고 토론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절기 때마다 읽는 성경이 있어서, 특정한 절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쳤다.

#### 교부시대의 성경읽기

<sup>7</sup> 현용수,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아라(2)*(서울: 웨마, 2004), 161.

<sup>8</sup> Barclay, William, *Educational Ideals in the Ancient Worl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9), 11.

<sup>9</sup> Isidor Epstein, *The Jewish Way of Life* (London: Golden Press, 1946), 200.

<sup>10</sup> 현용수,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웨마 3*(서울: 웨마, 2009), 141.

교부시대는 주후 약 100년~590년까지를 말한다. 교부시대 동안에 사도들의 저작들은 교회들 가운데 회람되고 있었으나, 아직 구약의 정경적인 짝으로 모아져 있지 않았다.<sup>11</sup> 그 책 자체가 사도적 저작인 동시에,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증적인 품질이 독자에게 자연적으로 신언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sup>12</sup> 신약의 성경이 정경이 되기까지는 당시 수많은 기독교 문서들 중에서 교회에 회람되고 읽혀지면서 성경을 읽을 때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정되었다. 또한 먼저 정경으로 인정받은 책들과 내용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구약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록된 여러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들을 읽으면서 구약과 조화를 이루고, 연결되는 책들을 정경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교부시대에 교부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sup>13</sup>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약을 신약과 연결 짓고자 모형론(typology)을 사용했다. 특히 예수에 관한 가르침과 연결 짓는다. 로마의 주교인 클레멘트에 따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신호를 보내려고 여리고 성에 매어 단 붉은 천은 예수의 피를 전조하고 있다(1 Clem 12:7)고 해석한다. 둘째는 알레고리(allegory) 방법론이다. 이것은 풍유적 해석 방법이다. 당시 일반 문학을 해석하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었다. 그래서 당시 통용되는 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여 성경에 적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풍유적 성경읽기 방법의 대표적인 두 인물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와 그의 후계자인 오리겐(Origen)이다.

---

<sup>11</sup> William W. Klein, Craig L. Blomberg, Robert L. Hubbard,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류호영 역, *성경해석학 총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86.

<sup>12</sup> 박창환, *성경의 형성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73.

<sup>13</sup> Klein, Blomberg, Hubbard,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류호영 역, *성경해석학 총론*, 87-97.

클레멘트는 성경 본문의 문자적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오리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이 몸, 혼 그리고 영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성경도 삼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리겐은 문자적 의미(몸)와 도덕적 의미(혼) 그리고 영적인 의미(영혼)로 세분화한다. 당시 알레고리적 성경읽기 방법은 다른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알레고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적합하고, 믿을만한 방법이 아니라고 배격했다. 주후 4세기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기독교 교리문답학교<sup>14</sup>가 세워졌다. 이 학교는 알레고리 대신에 성경에 대한 역사적-문법적 이해를 가르쳤다. 안디옥 학파는 성경이 보다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열쇠는 데오리아(theoria, “통찰력”)임을 말한다.<sup>15</sup>

셋째 미드라쉬적(midrashic) 해석 방법론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17장 14절의 본문은 성경에서 최초의 할례 예식의 준수로 아브라함 318명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318이란 숫자에 대한 기묘한 미드라쉬적 해석을 통해서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찾아내고 있다.<sup>16</sup>

교부시대에 여러 성경 읽기 방법이 있지만 가장 널리 사용하는 성경읽기 방법은 알레고리적(allegory) 해석 방법론이었다.<sup>17</sup> 알레고리적 성경해석 방법은 본문의 본래적인 의미를 벗어나 자기가 가진 기독교적인 개념을 주장하는 것으로 성경을 읽어 나간다는 비판을 받는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sup>14</sup> 이 학교의 주요 선생: 몸수에스티아의 테오도르(Theodore of Mopsuestia, 주후 약 350-428년)과 테오도레트(Theodoret, 주후 약 347-407년) 이들이 안디옥 학파를 이룬다.

<sup>15</sup> Klein, Blomberg, Hubbard,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류호영 역, *성경해석학 총론*, 87-97.

<sup>16</sup> 숫자 18은 두 글자로 표현되는데 J=10 그리고 E=8 그러므로 “JE”, 즉 JESUS의 약어가 된다. 그리고 300은 글자 T로 표현되는데 T는 십자가를 상징화 되고 있다고 해석한다.

<sup>17</sup> Robert H. Stein, *예수의 비유*, 명종남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88), 42.

것을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할 때에 더욱 순결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 중세의 성경읽기

중세의 대표적인 성경읽기 방식으로는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를 들 수 있다. 렉시오 디비나는 사실 고대 교부 시대부터 내려 온 성경읽기 방법이다.<sup>18</sup> 라틴어 *lectio*는 *legere*란 동사의 명사형이다. *legere*는 “모으다”, “필요한 것을 선택하다”, “눈으로 모아들이다”란 뜻인데, 특히 기록된 본문을 눈으로 훑어본다는 뜻이 있다. 이를 근거로 암브로스 와튼(A.Watten)은 *lectio*의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즉, *lectio*의 능동적 의미는 “모으다”, “집중하다”인데, 그 후 차차 뜻이 변하여 *lectio* 자체가 독서의 내용 과 대상을 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수도생활사에서 *lectio*는 독서의 대상, 방법, 목적 때문에 *divina* - “하나님의, 신성한, 신적인, 천주의” - 일 수 있었다. 이렇듯 ‘렉시오 디비나’는 용어 자체가 드러내듯이, 세속적 독서나 학문적 탐구 또는 신심 서적이거나 교리적인 독서와는 전혀 다른,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sup>19</sup> ‘렉시오 디비나’는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을 주관적인 영의 양식으로 바꾸는 해석법이다.<sup>20</sup> 그러나 한 가지 한계점은 개인적인 경험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총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sup>18</sup> 그리스 교부 오리겐(Origen)이 처음으로 ‘테이아 아나그노시스(Theia Anagnosis)’라는 그리스어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라틴어로 옮기면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가 된다. 참조 서인석, *말씀으로 기도하기* (서울: 성서와 함께, 2002), 6.

<sup>19</sup> 허성준,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서울: 분도출판사, 2003), 19-20.

<sup>20</sup> 유헌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0), 26.

중세시대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up>21</sup>

첫째는 전통적인 해석이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내려온 교부들의 견해를 의존하는 것이다. 둘째는 풍유적인 해석방법이다. 이것이 중세시대에 가장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방법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위그모어에 있는 영국의 대수도원장인 세인트 빅톨의 앤드류(Andrew of St. Victor)이다.

중세시대의 성경읽기 방법은 풍유적인 성경읽기 방법에서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성경읽기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풍유적인 성경읽기는 그 성경의 문자를 넘어서는 영적인 의미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문자적, 역사적인 성경읽기 방법은 글의 의미 자체에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문자적, 역사적인 의미 읽기와 함께 그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통찰력과 직관이 필요하다.

#### 근대의 성경읽기

4세기말 제롬에 의해 희랍어 사본을 번역한 라틴 벌게이트(Latin Vulgate)성경을 읽을 수 있는 계층은 교회 성직자나 소수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 손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1천년의 중세시대를 내려오면서 사본의 많은 변화와 수정, 첨가 복잡한 역사를 가지게 된다.<sup>22</sup> 15세기 중엽에 인쇄술이 발명되면서부터 사본 시대는 끝나고 성서가 처음으로 인쇄본으로 나오게 되었다. 독일에서 성서 번역의 신기원을 이룬 것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독일어역

<sup>21</sup> Klein, Blomberg, Hubbard,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류호영 역, *성경해석학 총론*, 99-100.

<sup>22</sup> *Ibid.*, 100-101.



성서이다. 1522년에 뢰텐베르크(Wittenberg)에서 신약전서가 나왔다.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제 2 판을 대본으로 하여 번역된 것이다. 뒤이어 나온 구약전서는 「브레스키아 히브리어 성서(the Brescia Hebrew Bible)」(1494)를 대본으로 하여 번역된 것이다. 루터의 히브리어와 아람어 독해력은 제한된 것이었으나 그의 번역에는 11~12세기 프랑스의 랍비였던 라쉬(Rashi)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 있다. 루터역이 완역되어 나온 것은 1534년이다. 루터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그의 번역을 계속 개정하였으며 1534년부터 1546년 사이에 열한 번이나 개정을 거듭했다. 마지막 판은 그의 사후에 나온다.<sup>23</sup>

루터가 말하는 성경읽기 방법은 성경을 교부들의 교리해석의 주석을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적인 문맥을 따라서 읽을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한 성령은 하늘과 땅에 계시는 가장 단순하신 저자<sup>24</sup>이시기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통찰력(직관)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루터의 성경읽기 방법의 주된 핵심은 역사적 문맥을 따라 읽는 것이고, 읽는 가운데 성경의 원 저자이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주관적 통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칼빈 역시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배격하고, 성경의 역사적인 해석을 선호했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 역시 성경을 교회의 유일한 최고의 권위, 즉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권위로 받아들인다. 칼빈에 있어 성경의 주관적 요소는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말을 사용한다. 칼빈에 따르면 “성령의 내증은 해석의 과정을 조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해석자의 마음에 그가 행한 해석

<sup>23</sup>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의 ‘성서에 관하여’ [http://www.bskorea.or.kr/about/bibcome/bibcome\\_set04.aspx](http://www.bskorea.or.kr/about/bibcome/bibcome_set04.aspx)(2016년 3월 13일 접속).

<sup>24</sup> Walter Kaiser C. & Moises Silva, *(An)Introduction to Biblical Hermeneutics: the Earch for Meaning*, 강창현 역, *성경 해석학 개론* (서울: 은성, 1996), 348.

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고 했다.<sup>25</sup>

17세기의 성경해석 역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움직임은 경건주의와 이성주의였다.<sup>26</sup> 경건주의자들의 성경읽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를 강조하고 있다. 신학적 이성주의는 울프(Christian von Wofflff: 1679-1754), 레마누스(Hermann Samuel Reimarus: 1694-1768), 레싱(Gotthold Ephraim Lessing: 1729-81)등의 의해 시작되는데 19세기와 20세기의 성경 비평을 포함한 자유주의적 기독교와 연관이 있다.<sup>27</sup>

바른 성경읽기는 읽고 알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다. 말씀을 읽는 것은 읽고 행하기 위해서이다. 실천이 빠진 성경읽기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고 진리로 믿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 현대의 성경읽기

19세기 인문 과학의 발달로 과학적 방법론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객관적, 과학적 방법론들을 통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 결과 역사적-비평 방법론(historical-critical method)이 생겨나게 된다. 이 방법론은 이성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보지 않고 다른

---

<sup>25</sup> Klein, Blomberg, Hubbard,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류호영 역, *성경해석학 총론*, 104.

<sup>26</sup> Kaiser & Silva, *(An)Introduction to Biblical Hermeneutics* 강창현 역, *성경 해석학 개론*, 349.

<sup>27</sup> *Ibid.*, 350.

문학들을 대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였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자연법에 비추어 설명하고, 초자연적인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래서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물리학, 생물학, 그리고 화학의 법칙들을 통해서 설명했다. 또한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으로 모든 역사는 발전이란 진화적 과정을 따라 일어난다고 믿었다. 그러기에 성경의 사상들을 시간에 제한 받는 진리로 간주하고, 성경의 말씀을 단순히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sup>28</sup>

최근에 성경해석학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객관적 진리와 인과관계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던 주의로 인하여 성경 읽기에 중요한 것은 ‘역사적’ 읽기도 ‘문학적’ 읽기도 아닌 ‘독자중심’의 읽기로 하나의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성경을 읽는 개인이나 특수한 공동체에게 의미가 있는 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관점의 성경해석 방법론이 독자 반응 비평과 여성 신학적 비평,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비평등이다.<sup>29</sup> 이와 같은 성경 읽기의 전제는 성경의 객관적 진리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스위스의 작은 시골 목사였던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는 자유주의의 실책들을 공박했으며, 종교개혁의 유산인 성경의 권위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강조한다. 또한 에밀부르너와 함께 신정통주의라는 새로운 신학 운동을 태동시킨다. 후에 차일즈(Childs)는 성경 신학 운동(Biblical Theology Movement)<sup>30</sup>을 불러 일으킨다.<sup>31</sup>

<sup>28</sup> Klein, Blomberg, Hubbard,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류호영 역, *성경해석학 총론*, 110.

<sup>29</sup> 안근조, “성경의 역사적 읽기와 문학적 읽기를 넘어서,” *목회와 신학* 192 (2005), 188.

<sup>30</sup> “성경신학”이란 용어는 철학자들이나 조직 신학자들의 신학과 달리 성경자체가 보여주는 신학을 가리킨다. B.S. Childs의 *Biblical Theology in Crisis*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13-60은 성경 신학 운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제공한다.

현대의 성경읽기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성경 본문 자체의 메시지에 집중하기 보다는 성경의 그 이면만을 연구하고 파헤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된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이성주의적 성경해석방법의 성경읽기는 성경의 가치와 권위를 손상시키고, 이성을 넘어선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비를 경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성경을 그냥 하나의 문학작품이나 역사를 재구성하는 문서로서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와 권위가 손상된 채 성경이 읽혀졌다.

#### 한국교회의 성경읽기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갱신이 있어났던 중요한 계기를 1907년 대 부흥운동으로 보고 있다. 1907년 평양 대 부흥운동의 발단은 1월 6일부터 10여일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성경공부에서 시작되었다. 하다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다른 이들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가 일어났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의 계기가 된 것이다.<sup>32</sup>

한국은 독특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글 성서 출판은 만주와 일본 두 곳에서 진행되었는데 만주에서 로스에 의해 1887년 신약성서 전체가 번역된 「예수성교전서」가 출판되었고, 일본 요코하마에서 이수정이 1884년

---

<sup>31</sup> Klein, Blomberg, Hubbard,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류호영 역, *성경해석학 총론*, 118-119.

<sup>32</sup>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89), 268-271.

<현토한한신약전서>와 이듬해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를 번역하였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손에 들려져 한국에 입국할 때 이수정역 성서를 들고 들어왔다.<sup>33</sup>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 모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1901년 여성 신자를 위한 성경공부가 개최되자 평양에서만 아니라 150~400리 이상 떨어진 삭주, 창성, 의주 등지에서까지 몇 주일간 먹을 쌀을 굶어지고 참석할 만큼 열심이었다.<sup>34</sup>

방위량(W.N, Blair) 선교사는 이렇게 말한다.

사경회 제도는 한국사역의 특징이었다. 각 교회는 일 년에 한 주간이나 그 이상을 매일 하루 종일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 정했다. 각 교회와 수많은 시골에서 개최되는 사경회와 순회사경회 이외에도 각 선교지부는 한번이나 그 이상 각 교회대표들이 참석하는 도 사경회를 열어 10일이나 두주일 동안 사경회와 수련회로 보냈다. 남자들을 위한 평양 도사경회는 일반적으로 1월 초순에 열린다. 연평균 참석인원은 1000명에서 12,000명 사이였다. 10마일에서 70마일까지 인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평양까지 왔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비로 왔고 사경회의 경비로 약간의 수업료를 지불했다. 이 도사경회는 8개 혹은 그 이상의 부분으로 나뉘어, 각 부분은 새벽기도회 시간과 30분간의 찬송시간에도 3시간내내 하는 성경공부시간이 있다. 밤에는 큰 모임이 시내의 한 교회에서 열렸다. 50년이 넘도록 한국교회가 급격히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조건을 각자 나름대로 설명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사경회라고 대답할 것이다.<sup>35</sup>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성장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는 사경회에서부터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더 빠르게 영적인

<sup>33</sup> 이덕주, *초기한국 기독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85), 415-429.

<sup>34</sup>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274

<sup>35</sup> William Newton Blair, *Gold in Korea*, 김승태 역, *속히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서울: 두란노, 1995), 98.

각성과 부흥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다. 한국 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의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성경통독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내가 가진 잘못된 이해와 세계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를 부여 잡는 결단과 믿음과 헌신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 제 III 장

### 성경통독의 본질

#### 성경통독의 요소

성경통독을 이야기 하기 전에 통독이란 무엇인가? 를 말해야 할 것이다. 우선 통(通)의 문자적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통하다. 꿰뚫다. 두루 미치다. 탈 없이 통하다. 두루 알다. 환히 비치다. 통하게 하다. 건다. 보급되다, 오가다, 왕래하다. 알리다. 전하다 통보하다. 정을 나누다. 등의 의미가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풀이는 ‘통하다’ 즉 ‘꿰뚫어 두루 미치다’ 라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는 마음이 통한다고 할 때에 생각과 마음이 서로 맞을 때 사용한다. 또한 사람뿐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등 추상적인 표현들의 예술 작품을 보거나 들으면서 우리는 느낌이 통한다고 말한다. 그러기에 통(通)이란? 꿰뚫어 두루 미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통독이란? ‘통(通) 방법으로 책을 읽는다’ 라는 의미이다. 책을 통으로 읽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루 꿰뚫어 이해한다는 것이다. 통독은 일단 책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단숨에 읽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짧은 시간에 책 전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

<sup>1</sup> 조병호, *쉬운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9), 55-58.

그 책의 내용에 대해 직관적인 이해를 갖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방법이다.<sup>2</sup>

성경통독은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파편화 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알고,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성경을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읽어 온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민족의 해방을 염원하며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을 애독하였다. 또한 해방 후 분단의 아픔을 겪고 남한에 군부 독재 시절이 오래 계속되자, 이때 소위 ‘보수’와 ‘진보’로 나뉜 한국교회는 성경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복음전파와 개인구원을 강조하며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중심으로 읽은 반면,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시대의 약자들을 도우려는 강한 열망으로 아모스서와 같은 구약의 예언서들을 많이 읽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시대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의 차이에 의해 그 읽기 범위와 이해의 방향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성경의 부분만을 보는 습관으로 굳어져 왔다.<sup>3</sup>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고 그것을 적용하게 될 때 성경은 자기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도구밖에는 되지 않는다. 성경이 성경자체의 권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본문과 그 성경이 쓰여진 상황과 또한 현재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를 ‘전체’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경자체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보기에다 어렵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두께도 두껍고, 그 내용도 파악하기에는 평신도들에게는 더더욱 버겁기 때문이다.

문희석은 1977년에 「통독을 위한 성서해설」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을 전

---

<sup>2</sup> Ibid., 61-62.

<sup>3</sup> Ibid., 44.



체적으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에 책을 출간한다.<sup>4</sup> 원제를 바꾸어서 책을 출간한 것은 성경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관점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인 구원의 관점으로 읽기를 바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을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각 권의 성경이 하나의 실로 꿰어지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바라보게 되면서 부분이 이해가 되고, 부분을 뛰어 넘어 더 깊이 통찰력 있게 성경을 읽고 적용하게 된다.

성경신학자들은 성경을 주어진 정경 그대로의 본문을 가지고 성경의 전체를 흐르는 주제를 찾고자 했다. 게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는 전-구속적 특별계시(pre-redemptive special revelation)와 구속적 특별계시(redemptive special revelation)라고 부르는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sup>5</sup> 계시라고 하는 주제로서 성경을 다루고 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것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성경통독은 어느 한 주제가 아닌 성경의 전체를 통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역사순서대로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통독할 때 지금의 성경의 순서로는 읽으면서 통찰력 있게 이해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순서로 성경이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성경 66권의 각 권마다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재배열 없이 읽어도 될 것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보고 읽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

<sup>4</sup> 통독을 위한 성서해설이란 책은 아놀드 B. 로드스(Arnold B. Rodes)의 *The Mighty Act of God*(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라는 책을 번역한 것이다. 문희석은 이 책의 원제목인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라는 제목 그대로가 아니라 통독을 위한 성서해설이라는 제목으로 내 놓았다.

<sup>5</sup> Goldsworthy Graeme, *Christ-centred Biblical Theology: Hermeneutical Foundations and Principles*, 윤석인 역, 그리스도 중심 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69.

각 권을 재배열하여 역사적 순서로 읽게 될 때에 그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게 해준다.

성경통독은 성경 이야기에 관한 많은 내용을 정리정돈하기 가장 좋은 방식이다.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따라, 부지런히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살피는 것은 성경통독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성경 이야기를 역사적인 흐름으로 기초를 다져 놓지 않으면 성경의 지식이 들어올 때마다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성경 이야기의 시간 흐름의 기초, 공간 흐름의 기초, 사람들 이야기의 기초, 사건의 관계와 의미에 관한 기초를 가장 잘 정돈하여 살펴볼 수 있는 읽기 방법이 바로 성경통독인 것이다.<sup>6</sup>

성경통독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건을 잘 정돈하여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읽게 될 때에 성경통독은 성경을 이해하고 의미를 발견하는데 더욱 유익하다. 성경은 권별 특성과 메시지를 살려 역사와 연대적 맥락에서 읽어 갈 때, 현장감과 실체감을 갖게 된다.<sup>7</sup>

교회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는 방학기간 동안에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성경을 현재 주어진 순서대로 읽으면 부분적으로 또는 구절구절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유익은 있지만 성경 전체흐름 속에서 그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역사 속에서 계시하시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그 메시지가 본문의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느낌과 통찰력과 정서들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을 역사적인 배열과 순서를 통해서 읽게 될 때에 읽는 가운데 지

<sup>6</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국제성경통독원, 2008), 23-26.

<sup>7</sup> 배성우, “성경 읽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스라하우스 노우호 목사와의 인터뷰,” *목회와 신학* 192 (2005), 148.

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의 심정과 목소리 톤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사랑 등을 느끼게 되는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면 말하는 사람의 표정 즉 미소를 짓고 얼굴을 찡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말하는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또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의 크기와 강약 그리고 떨림 등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또는 화가 났는지 기쁜지 등을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성경은 문자로 쓰여져 있다. 지식적인 내용이 문자로 담겼는데 그 문자가 우리 안에서 입체적으로 살아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자를 통해서 원저자(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어, 구절, 문장, 문단, 나아가 책을 읽지만 결국 성경 66권을 읽어가는 동안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읽어야 한다. 성경통독은 머리로 하는 공부라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펼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된다. …… 우리는 전체를 부지런히 통독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세계경영이 보이고 그분의 마음이 보인다. 하나님의 경륜과 마음이 보여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sup>8</sup>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성경의 원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

<sup>8</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6.

성경의 말씀을 영똥하게 해석하고 잘못된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계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23:23).” 예수는 마음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신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체를 통으로 보지 못하면 한 쪽의 것만을 취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진 문자적인 내용의 말씀을 뛰어넘어 내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고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 성경통독을 위한 5가지 시선

### 숲과 나무: 전체와 부분

성경통독을 하면 좋은 것은 성경의 전체의 ‘숲’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분부분을 분석하고 쪼개어 자세히 아는 방법에는 익숙하다. 그러나 부분이 이루고 있는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부분을 보기 이전에 전체를 보아야 하고 전체를 보면서도 부분을 볼 수 있어야 숲을 더욱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숲을 잘 봐야 나무의 의미 또한 명확해진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숲’을 보아야 한다. 한 인물의 숲, 한 사건의 숲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sup>9</sup> 물론 부분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징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분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징들이 전체와 조화 될 때 더욱 풍성하고 새로운

---

<sup>9</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9.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이다.<sup>10</sup>

예를 들어 솔로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도 명예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지혜의 왕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너무나 충성되고, 제사장 나라의 충성된 왕이다. 그러나 이 부분만을 강조하고 부각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그 이후에 솔로몬의 어두운 면이 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주변국의 공주들과 정략결혼을 하고, 산당을 짓느라 제사장 나라의 충성되지 못했던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후회하며 전도서를 쓰고 있는 솔로몬의 생애 전체를 살펴볼 때 그가 솔로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보게 되고, 어느 치우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숲과 나무를 균형 있게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터와 나이트: 시간과 공간

성경의 거의 모든 인물과 사건들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거기서 그 때(터와 나이트; geography and history)’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 즉 역사와 지리를 고려해야 한다.<sup>11</sup>

예를 들어 롯기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해서 희생하는 롯 그러한 이방여인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다. 롯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이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이다. 왕이신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왕이 된 시대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 시대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

<sup>10</sup>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통독원, 2009), 101

<sup>11</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30.

하는 보아스가 있다. 롯의 가족은 보아스로 인하여 절망과 슬픔의 삶에서 회복된다. 하나님의 비전인 제사장 나라의 꿈을 이해하고 제사장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행복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야기이다. 사사시대라는 암흑기 시대에 제사장 나라의 충성된 보아스로 인하여 행복이 가득한 베들레헴 마을이 된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와 지리를 알 때에 우리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더욱 명확해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 바람과 토양: 문화적 배경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문화적 배경(바람과 토양[風土]; culture)을 이해해야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생생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떠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냐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느 공동체에서든 이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문화를 만들지만,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각각의 문화적 특징은 다르다. 특히 성경은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 위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나 비유나 내용 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sup>12</sup>

문화는 성경이해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 가나안의 문화는 우상숭배와 음란과 약육강식의 제국적 통치방식을 가진 땅이다.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과 문화 속에서 가나안의 문화에 정신이 팔리고, 그 문화 속에 흡수되고 만다.

성경을 읽을 때에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고 읽어야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

예수는 유대문화와 헬라 문화 중심에 오셨다. 그 문화 속에서 다루어지는 언어와 풍습과 도덕과 법 등 문화적인 영향 아래 있으셨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선

<sup>12</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31.

포하신다. 예수의 메시지는 문화의 옷을 입고 전달된다. 예수가 마지막 만찬에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직접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의미가 담긴다. 또한 예수는 모든 문화 속에 모든 민족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법률과 생활방식을 가르치라고 하신다(마28:19-20). 우리는 성경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때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 씨앗과 열매: 명사와 동사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며 ‘사랑, 능력, 은혜, 믿음, 복’ 과 같은 명사(名詞)들에 집중하여 왔다. 그러나 성경을 통독하면 움직임, 즉 동사(動詞)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이는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움직임, 즉 사람들의 순종과 실천의 구체적 행위와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감을 증명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7절<sup>13</sup>에 ‘사랑’이라는 명사를 말함에 있어 수많은 동사를 필요로 한다.<sup>14</sup>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감동받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손과 발에 까지 전달된다. 하나님께서는 행동파이시다. 직접 손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명령하시고 뒷짐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사람이 되신다. 예수의 삶은 동사이다. 피곤한 가운데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기도의 자리에 가신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메달리신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행동하시는 동사들이다. 그러면 더욱 성경의

---

<sup>13</sup> 고전13:4-7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은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sup>14</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32.

단어들이 깊이 다가온다.

#### 뿌리와 나뭇잎: 발신자와 수신자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발신자 되시고, 우리가 수신자가 되는 러브레터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성경 말씀은 전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sup>15</sup>

성경이 그 나름대로의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읽게 될 때에 성경이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예를 들어 신명기서는 40년의 광야속에서 율법을 가르쳐온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들려주는 모세의 설교이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숨을 거칠게 몰아 쉬며 마지막 말을 들려주는 사람처럼 그동안 40년 세월동안 함께 해온 모세의 말을 듣는 출애굽 2세대들의 입장에서 듣는다면 신명기서는 더욱 생생하게 들려질 것이고, 모세의 간곡한 부탁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성경 말씀 속에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들어가 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예수의 메시지가 더욱 깊이 다가온다. 예를 들어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돌로 치려하지만 예수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 죄로 가득한 여인 명할 명분도 없고 죄가 들켜버린 상황 속에서 예수는 용서하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8:11). 들통난 죄 가운데 처벌 받아야 할 입장에서 예수의 음성은 여인의 가슴을 울린다. 그 여인의 입장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음성에 그 깊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

<sup>15</sup> Ibid., 32-33.



된다.

## 제 IV 장

### 성경통독과 설교 이해

#### 통전적 이해

인간은 개인이 가진 주어지는 환경과 경험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고 사고하게 된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환경과 경험과 교육이 한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사고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한다.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설교자의 설교를 더욱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통전적(通專的)’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통전적’이란 말의 영어로 표기 ‘홀리스틱’ (holistic)이란 말은 온전함과 관계가 깊은 단어이다.

<sup>1</sup> ‘통전적’이란 전체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통합하고 온전함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전적’이란 절충주의나 혼합주의가 아니라 온전성(wholeness)을 지향하는 것이고,<sup>2</sup> 단순히 부분을 모은 합의로서의 의미를 넘어선 전체(whole)를 의미한다고

---

<sup>1</sup> 이종성, *통전적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54.

<sup>2</sup> 윤철호, “통전적 신학 방법론-춘계 이종성의 신학방법론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7/1 (2015), 128.

보아야 한다.<sup>3</sup> 인간을 이해할 때 통전적(holistic)이라는 말과

전인적(holistic)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론 밀러(Ron Miller)는

전인적 세계관(holistic worldview)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인적 세계관은 객관적 성취와 삶의 주관적, 개인적, 내면적, 영적측면의 통합을 추구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생명에 대한 존경이며, 참된 행복, 조화, 평화가 있을 때 비로서 물질적 성공도 가치 있는 것이 된다. 미, 기쁨, 사랑, 연민, 개인적 온전함과 같은 생명의 가치들을 인식하며 어떠한 물량적 기준으로도 측량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인적 세계관은 지구를-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이 자리하는 곳 - 본질적으로 신성한 곳으로 본다. 자연의 세계를 경외감과 존경심을 가지고 이해하기를 추구하며, 지배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인간 자신을 포함한 전 생명체와 무생물체 사이에 섬세한 연결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생태학적 관점이다. 전인주의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이며, 우리가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초월적 창조적 원천의 개인적 표현이라고 본다. 폭력, 탐욕, 압제의 부끄러운 역사는 우리 자신의 영적 본성에 대한 무지와 억제를 반영한다. 인간의 발달은 종결된 것이 아니다 아마도 결코 종결이란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전히 도덕적, 문화적, 영적으로 발전한다. 전인적 접근은 협동과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잠재된 능력의 발전을 도모하며, 정의롭고 돌봄이 있는 사회에서 실패자가 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다. 전인적 세계관은 범세계적 관점이며 이는 모든 문화에서 무엇이 뚜렷이 인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는 경쟁이 핵시대에 오직 완전한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전인적 접근은 우리의 궁극적 연합성을 표현해주는 다양성을 환영한다.<sup>4</sup>

론 밀러에 의하면 전인적인 이해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통합되고, 인간의 육체적이고, 내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통합되는 것이다. 참된 행복, 조화, 평화는 물질적인 것과 함께 미, 기쁨, 사랑, 연민과 같은 생명의 가치들이 서로 존중되고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생태학적 관점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이해하고 지배나

<sup>3</sup> 조병호, *통이다 랫츠 통* (서울: 통독원, 2009), 79.

<sup>4</sup> Ron Miller.de., *New Directions in Education: Selections from Holicstic Education Review* (VT: Holicstic Education Press, 1991), 2. 김영래, *기독교 교육과 삶* (서울: 다산글방, 2002), 52 에서 재인용.

통제가 아니라 모든 생명은 서로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경외감과 존경심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문화적 이해와 언어적, 문법적 이해, 이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 직관적인 이해까지 이르는 통전적 이해가 필요하다. 성경통독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책으로 인식하고 짧은 시간 안에 전체적으로 읽어감으로써 파편적 지식과 사건들을 연결되게 한다.

#### 통시와 공시<sup>5</sup>

사물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위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 에 따라 물건의 모양은 달라진다. 그러나 그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통전적으로 보아야 한다.

다양한 각도로 성경을 보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공시적(synchronic) 접근과 통시적(Diachronic) 접근이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간의 가로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공시적 각도와 시간의 세로축으로 표현될 수 있는 통시적 각도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sup>6</sup>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성서학 연구에 있어서 주석학적 방법론에 있어서 양대 산맥인 공시적

---

<sup>5</sup> 일반적으로 “통시” 그리고 “공시”란 단어들은 원래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로서 오늘날의 문학 혹은 문헌적 구조연구에 사용되는 개념들이다. 이러한 구분은 원칙적으로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난드 데 소슈르(Ferdinandde Saussure: 1857-1913)와 그의 저술 *일반 언어학원론(Cours de Linguistique Generale)*에 기인한다.

<sup>6</sup>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54.

방법론(Synchrony)과 통시적 방법론(diachrony)이 구약학계에서 철저하게 양극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론이 모순적이거나 충돌적인 것이 아니라 이 두 접근방법은 성서 본문을 읽는데 있어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며 서로 보완적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sup>7</sup>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도록 모든 양식과 방법을 알려주신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다. 다윗은 왕궁을 짓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천막으로 된 것을 마음에 견딜 수 없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심정을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한다. 공시적으로 보면 다른 신을 위한 장소인 산당은 부정한 장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심정을 전달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아 들이시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신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성전을 볼 때 거룩한 장소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권력과 재물을 탈취하는 장소로 바뀌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되지 않는다. 예수는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 사흘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성전 자체이라고 메시지를 주신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다. 예수는 임마누엘 되신 자신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전하신다. 통시와 공시는 통전적인 이해로 나아가게 한다.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분 자체이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인격 되신 예수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

<sup>7</sup> E.talstra, *Het gebde van Sotomo Synchronie en Diachrony in de komtiesitie van 1 Kon 8, 14-61*(Amsterdam, 1987) = *Sotomon's Prayer*"Synchrony and Diachrony in the Composition of 1 Kings 8 14-61(CBET 3: Kampen, 1993): Daniel H. Ryou, *Zephaniah's Oracles Against the Nations: Its Synchrony and DiaChrony,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13* (Leiden/ New York/ Keoln: EJ. Biill, 1995), 260. 류호준, "차세대를 위한 성경해석, 이렇게 제안한다," *목회와 신학* 81 (1996), 재인용.

## 조화와 연결

숲은 숲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나무는 나무 자체로의 아름다움이 있다. 나무 하나하나가 아름다울 때 숲도 아름답다. 숲과 나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와 부분은 조화를 이루고 연결되어 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이다. 초월하신 분과 연결되고 연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롬6:3-4). 분리된 상태에서는 초월적인 분의 생각과 사고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초월하신 분과 연합될 때 모든 것이 이해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나는 아이” 라고 고백한다(렘1:6).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사6:5).” 라고 죄인인 자신을 고백한다. 바울은 “죄인중에 괴수(딤후전1:15)” 라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다. 우리는 초월하신 분을 만나고 인식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깨닫는다.

## 맥락적 이해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니,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 걸쳐서 모든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신다.<sup>8</sup> 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은 성경의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특정한 문화 속에 살았던 특정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필요들을 다루신다.<sup>9</sup> 하나님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전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들어야 한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에 성경 본문에 역사적-문화적 맥락과 일치해야 한다. “성경본문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원래 최초로 말씀하셨을 그 때

<sup>8</sup> Craig S. Keener,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New Testament* (InterVarsity press, 1993), 24.

<sup>9</sup> Hays, J. Daniel, *Grasping God's Word Workbook*, 류호영 역, *성경 해석 워크북*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145.

본문의 의미”<sup>10</sup>라는 점을 성경을 읽는 독자는 알고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역사적-문화적 맥락이란 성경저자, 당시의 성경 독자 그리고 본문 자체에 관계된 모든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알 때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좀 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문학적 형식, 내용상의 주장의 흐름, 본문의 단어들과 문장들의 의미 등등이다.<sup>11</sup> 초기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무시하는 성경읽기는 풍유적 성경읽기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풍유적 성경읽기를 배격하고 역사적 성경읽기가 꾸준히 진행되었고, 종교개혁시대까지 진행되었다. 그 이후 개신교 신학에서 구원 역사를 실제적으로 확립한 것은 바로 17세기 록세이우스(1603~1669)이었고, 이후 ‘구속사(Heilsgeschichte)라는 용어를 사용한 19세기 루터 주의학자 폰 호프만(1810~1877)의 의해서 성경의 역사가 구원 역사라는 것을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sup>12</sup> 에드먼드 클라우니(Edmund P. Clowney)는 성경의 실질적 통일성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에게서 중심을 찾는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역사의 핵심에 초점을 맞춘다.<sup>13</sup> 윌리엄 덤블렐(William J. Dumbrell)은 언약으로서 맥락의 통일성을 찾는다. 그의 책 『언약신학과 종말론』은 “대략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진전은 창조로 시작해 구속을 거쳐서 새 창조로 이어진다.” 라고 주장한다.<sup>14</sup> 찰스 스코비(Charles H.H. Scobie)는 초창기에 하나님 나라를 지배적인 중심 주제로 사용한다. 그러나 하나의 중심주제를 찾아내는 것은

---

<sup>10</sup> Gordon D. Fee and 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A Guide to Understanding the Bible, 2nd ed* (Grand Rapids: Zondervan, 1993), 26.

<sup>11</sup> Hays, J. Daniel, 류호영 역, *성경 해석 워크북*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145

<sup>12</sup> Goldsworthy Graeme, *Christ-centred Biblical Theology: Hermeneutical Foundations and Principles*, 윤석인 역, *그리스도중심 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70.

<sup>13</sup> Ibid., 111-112.

<sup>14</sup> William, J. Dumbrell, *The Search for Order: Biblical Eschatology in Focus*, 장세훈 역, *언약신학과 종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9.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는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야기하기하고 세가지 접근법<sup>15</sup>을 통해서 성경의 맥락을 잡아간다.

조병호는 성경에 맥락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제국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임을 밝힌다.<sup>16</sup> 구약성경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제국(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제국)과 거대한 제국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제사장 나라의 원형인 팔레스틴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대한 힘과 권력을 가진 제국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인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신다(출19:6). 구약에서 제사장 나라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바로 다윗이다. 그는 제사장 나라를 정확하게 인식했고,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이후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 왕조의 왕정 5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왕들은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왕으로서 오신다. 그의 책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수렴시킨다고 말한다.<sup>17</sup>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이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마5:17).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고전12:27, 엡4:12),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이다(고전3:16-17). 성경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믿음의 성도는 예수를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인 동시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성경을 통독할 때 우리는 성경의 전체 구조가 보이고, 특정 주제들이

---

<sup>15</sup> 찰스 스코비는 자신의 책 *The Ways of Our God*에서 성경신학의 구조를 논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이야기한다. 조직적 접근법, 역사적 접근법, 주제적 접근법이다.

<sup>16</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A, THE, HIS KINGDOM)* (서울: 통독원, 2014), 352-371

<sup>17</sup> Ibid., 212.



연결되어 통일성 있게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성도 인정해야 한다. 각 성경신학자들이 바라보는 각기 다른 관점들을 바라보면서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성경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 상황적 이해

하나님께서서는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역사와 무관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신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팔레스틴이라는 공간적, 지리적 배경 속에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러기에 성경의 역사적 상황(Context)를 이해하고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크로아토(Croatto)는 “성서를 읽는다는 것, 혹은 해독(reading)한다는 것은 의미-생산(a production-of-meaning)이다. 그 생산은 주어진 자리 혹은 상황(Context)안에서 일어난다. 이 상황은 본문의 ‘뒤로 거슬러올라가는 상황’, 다시 말하면 과거 지향적 상황을 찾아 그 역사적 상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상황’, 즉 받아들이는 사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의미 있는 교훈과 말씀을 찾으려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본문은 새로운 역사적 사건 속에서 재해석됨으로써 의미가 계속 자라는 것이다.”<sup>18</sup> 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의미 있는 교훈과 말씀을 찾으려는 것은 이해하나 과거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본질적인 메시지를 무시한 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위험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고, 그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때

---

<sup>18</sup> Croatto, J. Severino, *Biblical Hermeneutics: Toward a Theory of Reading as the Production of Meaning* (NY: Orbis Books, 1987), 50-52.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재해석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하스의 뒤를 이은 히스기야가 당면한 정치적인 상황은 아버지처럼 계속해서 앗수르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자주 국방정책으로 나아갈 것인가? 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앗수르에게 바치는 조공이 너무나 힘이 들어 남쪽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앗수르를 막아보려고 계획한다. 하지만 이사야는 별거벗은 몸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내가 별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것처럼 너희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앗수르는 주력부대 18만 5천명을 이끌로 쳐들어오고, 히스기야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하루 밤사이에 앗수르 군대는 무너지고 역사의 무대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다.

성경의 상황적인 배경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게 된다. 한국은 분단된 국가이고, 전쟁의 위협과 위기가 순간 순간 다가온다.金正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예측불허의 돌발상황들을 겪으며 안보를 위한 문제는 한반도에 가장 중요한 정치 상황 중 하나이다. 히스기야의 정치적인 상황과 배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 원하신다. 현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신다.

## 실천적 이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즉각 순종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22:12).”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고 선포한다(신12:4).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과 연결된다고 말한다.<sup>19</sup>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비전과 꿈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어진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은 거대한 제사장 나라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400년후에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알았기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70여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앞으로 400년후에 새로운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행동한다. 그의 구체적인 행동 첫 번째는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의 문화에 섞이지 않도록 고센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한 성도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기만 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긴다.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알기 때문이다.

---

<sup>19</sup>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칼빈과 영성* (서울: 고신대학교개혁주의학술원, 2010), 78.

## 관계적 이해

하나님께서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홀로 거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서기관 하나가 예수와 변론하면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냐는 질문에 예수는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다(막12:30-31).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신다. 그리고 사람들 서로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스윗은 “성경적 믿음의 관건은 도덕적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성한 삶 곧 하나님 관계 속에 사는 것이라고 한다. 성경적 순종은 하나님의 지시에 복종하는 것 못지 않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비추어 산다는 뜻이다. 즉 관계적 순종이다.”<sup>20</sup> 라고 말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성도들간에 관계적 공동체를 이룬다. 현대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주일 예배에만 참여하는 성도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무학교회에서 2달에 한번 50~60명가량의 새가족 6주과정을 마치고, 교인으로서 등록이 된다. 등록된 교인들 속에서 적게는 1년 많게는 7년까지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주일에 예배만 드리다가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자들이기에 나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어 나간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 타인을

<sup>20</sup> Sweet, Leonard, *Out of the question- into the mystery: [getting lost in the Godlife relationship]*, 윤종석 역, *관계의 영성*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7), 105.

향하여 복음을 증거한다.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제사들에게 일흔 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다. 나 혼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 제 V 장

### 프로젝트 실행과정: 무학교회

프로젝트는 필자가 부 교역자로 섬기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었다. 2015년 한해 동안 말씀 대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역사 순서대로 되어 있는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 교재(통독원)를 선정하여 새벽기도회에 사용하였다. 또한 상반기 성경통독 세미나, 하반기 성경통독 세미나를 2회에 걸쳐 진행하였고, 월별로 1년 1독 큐티 성경 통독 교재의 순서대로 매일 마지막주 토요일에 성경통독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 프로젝트의 순서

##### 1년 1독 성경 통독 교재에 따른 새벽기도회

먼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알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모든 성도들이 1년에 성경 1독을 한번 해보자는 마음에서 시작하였다. 믿음의 성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 항상 몇 가지 결심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성숙을 위한 성경 읽기와 두 번째는 기도생활을 다짐한다. 교회가 정기적인 기도회에 성경 읽기를 진행한다면 성경 읽기의 도전을 쉽게 진행 될 것이고, 또한 기도회와 함께 진행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매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새벽기도회(오전5시30분)에 정해진 역사 순으로 정해진 성경 통독부분을 읽고, 그 내용을 인도하는 목사가 설명과 함께 설교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무학교회는 역사순대로 365일 성경 읽기 범위<sup>1</sup>에 따라 제작된 1년 1독 성경 통독 교재를 사용하였다. 이 교재는 3개월 단위로 분책이 되어 4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 역사 순 365일 매일 성경 읽기 범위에 따른 새벽기도회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 a. 시작기도 (AM 5:30): 짧은 목회의 기도로 시작하고 인도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한다.
- b. 찬송 부르기(AM5:32): 말씀과 관련된 찬송가 한 장을 선택하여 부른다.
- c. 1년 1독 성경통독 교재에 따른 매일 성경 통독: 첫장은 회중들과 인도자가 서로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한다. 그리고 남은 분량을 미리 준비한 통독사의 통독 CD를 준비하여 낭독하는 성경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성경책을 보면서 따라간다.
- d. 정해진 성경 본문 내용 설명과 설교: 인도자가 성경의 내용을 배경과 함께 잠시 설명하고 깨달은 말씀을 간단하게 설교한다.
- e. 통성기도(2번): 주어진 말씀의 깨달음을 따라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번 더 통성으로 기도를 인도한다.
- f. 인도자의 마침 기도와 함께 축도로 마친다.

#### 월별 성경 통독 진행

월별 성경통독은 매일 새벽기도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평소에는 성경통독하기를 원하지만 직장이나 다른 일로 바빠서 성경통독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하였다. 오전 시간에는 그 달에 읽을 성경통독 범위의 분량에 해당하는 내용을

---

<sup>1</sup> <부록 1> ~ <부록 4> 참조

전체적으로 설명해준 후에 나머지 시간은 성경을 통독하였다.

월별 성경 통독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 a. 월별 성경통독 범위에 대한 개관 설명 (Am 9:00 ~ Am 12:00): 인도하는 목회자가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설명해준다.
- b. 점심 시간 (Am12:00~Pm 1:00): 각자 점심시간에 점심을 해결한다.
- c. 월간 성경 통독 1 (pm 1:00~ 2:30): MP3 로 되어 있는 통독사의 성경통독 CD를 틀어주고, 성도들은 개인의 성경책을 가지고 눈으로 따라가며 읽고 귀로 듣는다. 또한 통독시간 마지막에는 서로 합독하기도 한다.
- d. Break Time (pm2:30~2:45):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고 함께 차를 나누고, 휴식을 취하며 서로 교제한다.
- e. 월간 성경 통독 2 (pm2:45~4:30): 월간 분량의 통독 분량을 통독CD를 틀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따라가면서 통독한다.

월간 통독의 장점은 매월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집중적으로 하루에 읽는다는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에 읽으면서 성경 내용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살피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목회자가 전체적인 성경에 대해서 2시간이라는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해주고 성경통독을 한다. 그러기에 성경통독 때 집중이 잘 되고, 인도자의 설명을 기억하면서 통독을 함으로 성경 읽기에 집중력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은 그 달의 성경통독을 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멈추었다가 그 다음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에는 그 전에 성경통독의 내용을 다시 살피고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앞부분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다.

#### 한 주간 집중 성경 통독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토요일 오전12시 30분까지 한 주간 동안 진행하였다. 장소는 교회에서 진행하였다. 합숙을 하며 진행하는 성경통독프로그램은 일단 모든 시간을 비우고 그 성경통독에 집중하기에 저녁 늦게까지 진행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통독을 하며 3박4일안에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진행할 때에는 대부분



성경통독에 참여하는 대상은 주부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아침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은 출근시키고, 저녁에는 아이들의 귀가, 남편들의 퇴근 등이 있어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진행하였다. 또한 체력적으로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가 좋았다. 2015년 이전에 진행하던 집중 성경통독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할 때에는 체력적으로도 다들 힘들어하였다. 그러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는 성경통독에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저녁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오히려 낮 시간 동안에 성경통독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소 시간이 4일에서 6일로 연장된 감은 있지만 진행과 흐름상에는 훨씬 편안하고, 집중력이 생겼다.

한 가지 아쉬움은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성경통독하는데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설명이 다소 부족함을 느꼈다. 그러나 성경말씀 자체의 도전을 받고, 성경말씀자체의 권위가 있기에 성경통독을 하는 동안 재미있게 참여하였다.

## 설문 및 분석

성경통독을 진행하면서 느낀 성도들 각자의 이야기<sup>2</sup>

<부록 5>는 성경통독을 진행하면서 무학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학생에서부터 은퇴하신 권사님 장로님들까지 다양하게 성경통독하는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를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4가지로 크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sup>2</sup> <부록 5> 참조

신학적 인식이 일어났다.

성경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황\*\* 학생은 고 3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경통독에 동참하였다. 수능을 준비하고 공부하기에도 바쁜 시간들인데 성경통독에 동참한 것이다. 그 학생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찌질하다’고 깨닫는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부전자전이다. 둘 다 찌질한데 그런 찌질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해서 감탄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권\*\* 성도는 성경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고 있다고 한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과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겹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진다고 말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인가?

신앙적 자각이 생겨났다.

복음의 열정이 일어난다.

복음의 열정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일어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1:8)고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는가? 황\*\* 권사는 말씀을 읽고 나니 이웃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한다. 왜 이 좋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일까? 왜 이 좋은 구원자 예수를 모르는 것일까? 하는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마음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가 일어났다.

안\*\* 성도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다짐한다. 또한 어느 집사는 말썽을 피우고 힘들게 하는 손주에게 화를 내고 호통을 치고 싶은 생각을 가다듬고 부드러운 말과 사랑의 말로 권면한다. 화를 내고 호통치고 분노하는 것이 죄 된 생각과 마음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기에 부드러움 말로 겸손한 말로 사랑으로 대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 학습적 효과

설교가 이해가 되고 설교에 집중하게 되었다.

어느 성도님 딸은 예배시간만 되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이해가 되지 않으니 졸리고, 지루하기만 했는데 성경통독 후에 달라진 것은 설교의 말씀이 잘 들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은혜가 되고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고 말한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다.

성경이 흥미롭고 재미 있어졌다.

성경의 두께만 보아도 엄두가 나지 않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항상 부담이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도들이 성경통독을 하면서 성경이야기에 빠져들어간다. 재미 있으니 그 다음 내용을 읽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 그 사하라 사막같이 느껴졌던 레위기도 어느새 훌쩍 지나가버린다.

어느 양\*\*권사는 어렵게 느껴졌던 레위기가 흥미로워지고, 재미있었다고 말하고, 저녁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던 성도들이 성경통독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또한 하루를 보내며 길을 걸으면서 성경을 듣는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통독하게 된다.

성경통독을 하면서 처음에 1년 1독을 목표로 진행하던 성도들이 4독 5독 어떤 성도는 20일만에 성경을 1독하면서 전체의 흐름이 보여진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전에는 성경을 가끔 읽기만 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말씀을 읽고, 점심 때 뜻을 생각하며 은혜가 깊어지고, 자기전에 다시 성경을 펼쳐서 읽는다고 한다.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싶은 것이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지루하지가 않는다. 성경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았다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성경의 말씀이 달고, 또 먹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읽고 싶어지는 것이다.

d. 심미적 영향을 받았다.

성경통독은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였다. 성경을 통독하는 가정에 분위기가 달라진다. 사소한 것에 짜증과 불만과 화가 치밀던 마음이 줄고, 차분해졌다고 한다. 병원에서 수술하던 환자가 성경을 통독하며 말씀에 확신을 얻으며 위로를 받고, 김\*\* 은퇴권사는 성경통독을 하고 나서 좋은 것은 잠을 잘 때 예전보다 더 깊이 폭 자게 되어서 좋다고 고백한다.

성경통독을 진행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어느 한가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통전적인 영향을 받았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신학적 깨달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일어나는 신앙적인 자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설교가 재미있어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알고 싶은 열망이 생겨났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도들은 이야기 한다.

## 성경통독과 설교 이해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

### 설문응답자 분석

설문 참여자는 모두 10년이상 신앙생활을 한 성도로서 2015년 성경통독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들이다. 설문 참여자의 직분은 권사가 22.2%, 서리집사는 33.3%, 안수집사는 11.1%. 평신도가 33.3%였다. 설문 참여자의 연령은 40대가 22.2%, 50대가 33.3%, 60대가 33.3%, 70대가 12%였다. 설문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이 11%, 여성이 89%였다. 여성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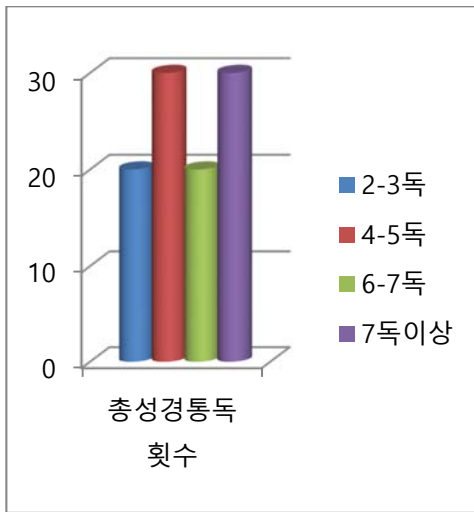
### 성경 통독 횟수에 관한 질문 분석

설문 참여자는 무학교회 출석한지 10년 이상 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sup>3</sup> 설문 참여자들이 섬기는 직분은 다양하였지만 신앙 생활하면서 성경통독의 횟수는 개별적으로는 차이가 있었다. 지금까지 총 성경통독 횟수는 2~3독에서부터 10독이상까지 다양하였다. 10년이상 신앙생활 해오면서 성경통독을 2~3독 하신 성도가 20%, 4~5독하신 성도가 30%, 6~7독 하신 성도가 20%, 그리고 7독이상 하신 분이 30%가 되었다. 또한 ‘2015년 한해 동안 성경을 몇 번 통독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1번 통독하신 성도가 50%, 3독하신 성도가 10%, 4독~9독이 30%, 10독이상 통독하신 성도가 10%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3독이상 통독하신 성도 50%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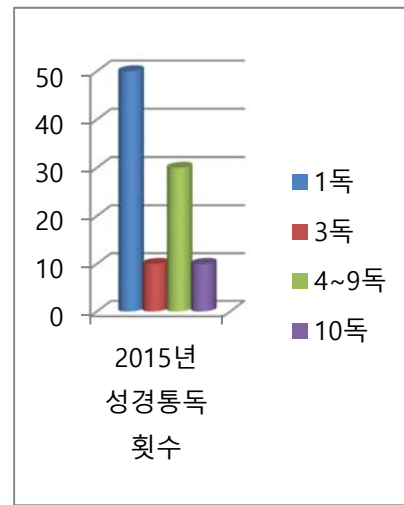
---

<sup>3</sup> 설문지 <부록 6> 참조

&lt;표1&gt; 총 성경 통독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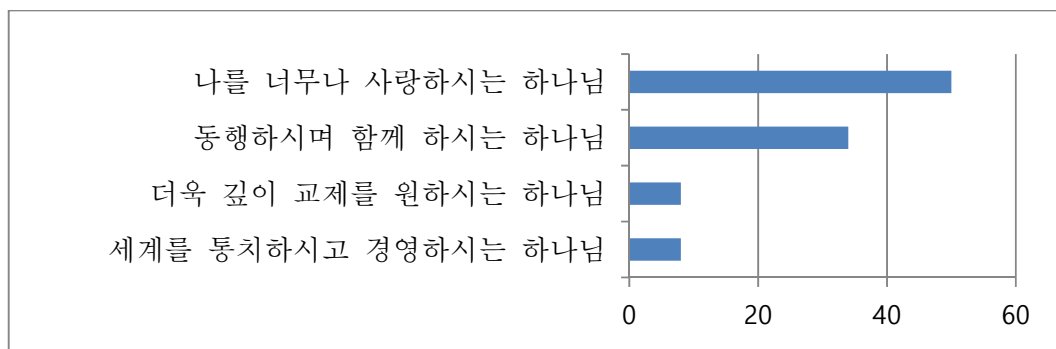
&lt;표2&gt; 2015년 성경통독 횟수



<표1>와 <표2>의 결과를 보아서 2015년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2015년 한해 동안 1번이라도 성경통독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10년이상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지금까지는 성경을 간헐적으로 읽고 있었으나 이번 성경통독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경을 1번이라도 통독하였고, 또한 열심으로 여러 번 통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성경통독은 교회가 함께 읽기를 권장하고,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끌어준다면 많은 성도들이 성경통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어렵지 않게 성경통독을 할 수 있게 되어짐을 보여준다.

다음은 ‘성경통독을 통해서 가장 깊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서술 질문에 답한 결과이다.

<표3> 성경통독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표3>을 보는 것과 같이 성경통독을 하신 분들이 가장 깊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50%이었다. 두 번째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34%, ‘나와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8%, ‘세계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8%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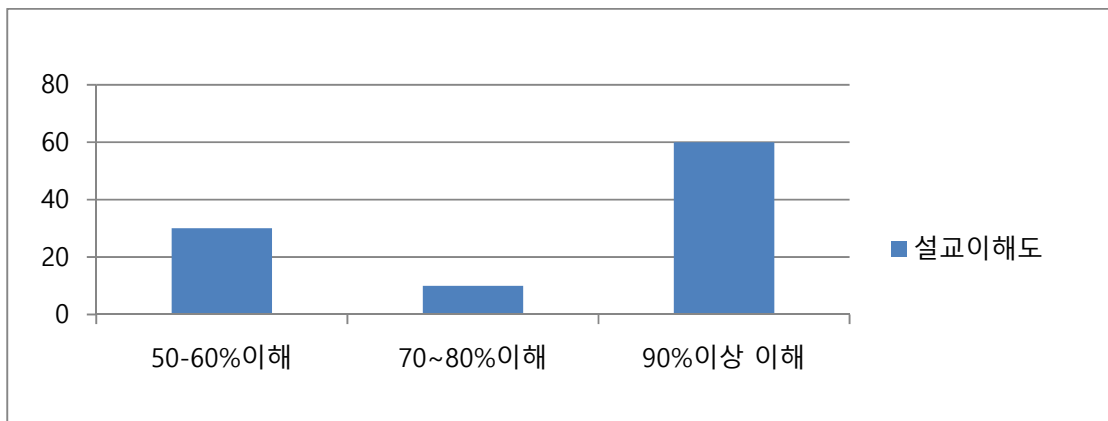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가장 크게 느껴진다. 가슴 절절히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반면에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주는 어리석은 백성들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신약성경을 펼쳐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예수의 족보와 탄생 기사를 접하게 된다. 그렇게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찾아오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대할 때 우리의 가슴은 터져 버릴 것 같다. 대부분의 성경통독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짐을 보게 된다.

#### 성경통독과 설교 이해

성경통독이 설교 이해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까? 다음은 성경통독과

설교이해에 관한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성경통독을 한 성도가 설교를 이해하는 이해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50~60% 이해한다’ 는 대답이 30%, ‘70~80% 이해한다’ 는 대답이 10%, 그리고 ‘90%이상 이해한다’ 고 대답한 성도가 60%가 되었다. 그래도 설교자의 설교를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4> 성경통독과 설교이해도



<표4>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90%이상 설교를 이해한다’ 고 답한 성도가 60%로 나타난다. ‘90%이상 설교를 이해한다’ 고 답한 성도의 퍼센트와 2015년 한 해동안 3독이상 성경을 통독한 성도의 퍼센트가 50%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게 된다면 짧은 시간동안에 성경통독을 다독하신 성도가 설교를 더 잘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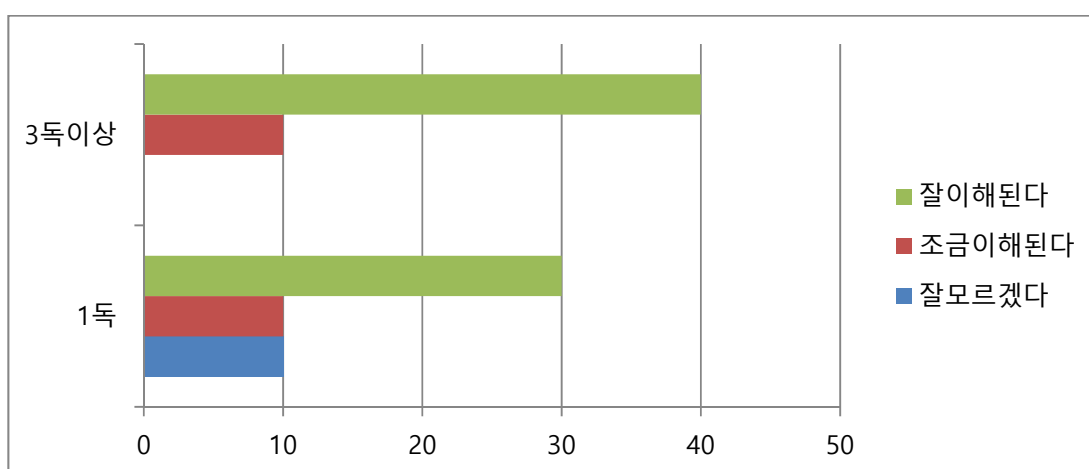
다음으로 설교의 내용중 성경의 제국(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배경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 고 대답한 성도가 60%, ‘어느 정도 이해한다’ 고 대답한 성도가 30%, ‘전혀 모르겠다’ 고 대답 성도가 10%를 차지했다.



성경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한다’ 고 대답한 성도가 60%라고 하면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혀 모르겠다’ 는 대답도 10%나 되었다.

필자는 그러기에 2015년 성경통독 횟수와 성경의 배경인 제국의 이해도를 중복으로 체크한 것을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5> 2015년 성경통독 횟수와 제국의 이해도



<표5>의 결과를 보게 되면 성경통독을 1독하였을 때에는 제국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이해된다고 하는 빈도수가 많으나, 성경통독을 3독 이상 했을 때에는 잘 이해된다고 답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은 사라져 있다. 이것은 성경통독 횟수와 성경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성경통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설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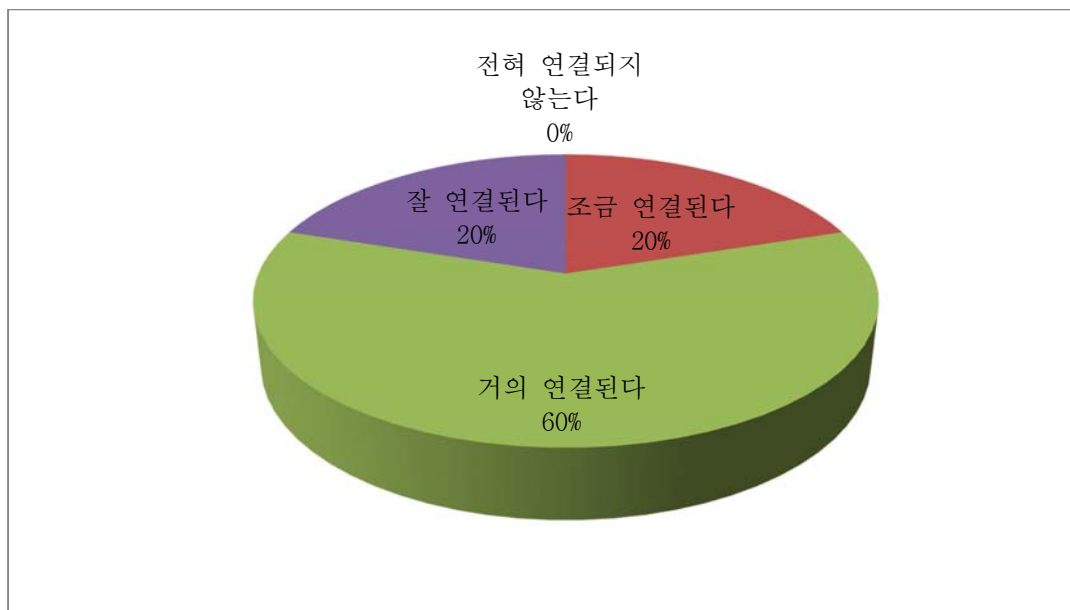
#### 설교의 맥락적 이해

다음은 구약의 하나님 사랑과 신약의 예수님 사랑과의 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설문한 결과이다. 구약과 신약의 사랑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잘 연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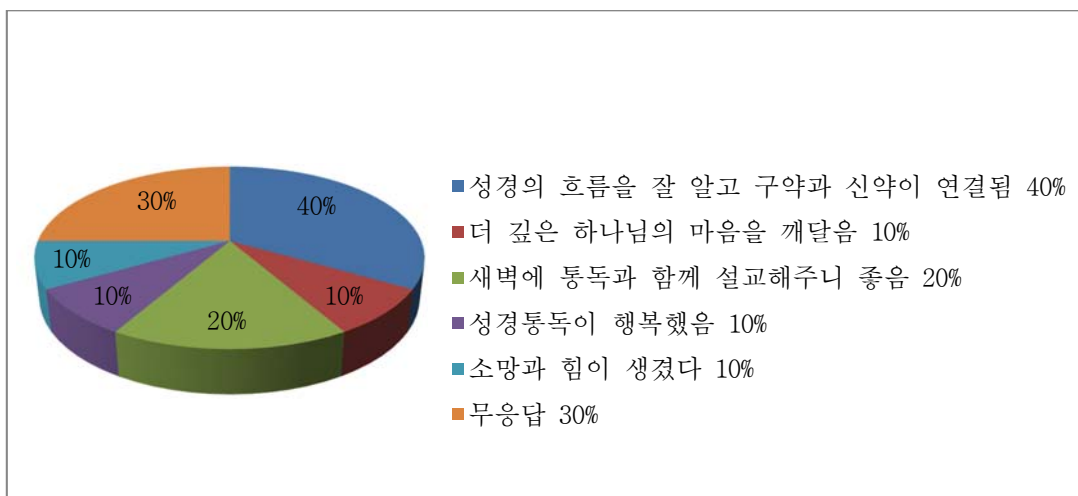
된다' 고 답한 성도가 90%였고, '조금 연결된다' 가 10%가 되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끼고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흡족할 만큼 연결되지 않는 성도도 10%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성경의 중심 주제인 제국과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 '성경통독후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설교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자유롭게 서술해달라?' 는 설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6> 제국과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연결 이해도



<표7> 성경통독 후 성경과 설교에 대한 이해에 대한 자유의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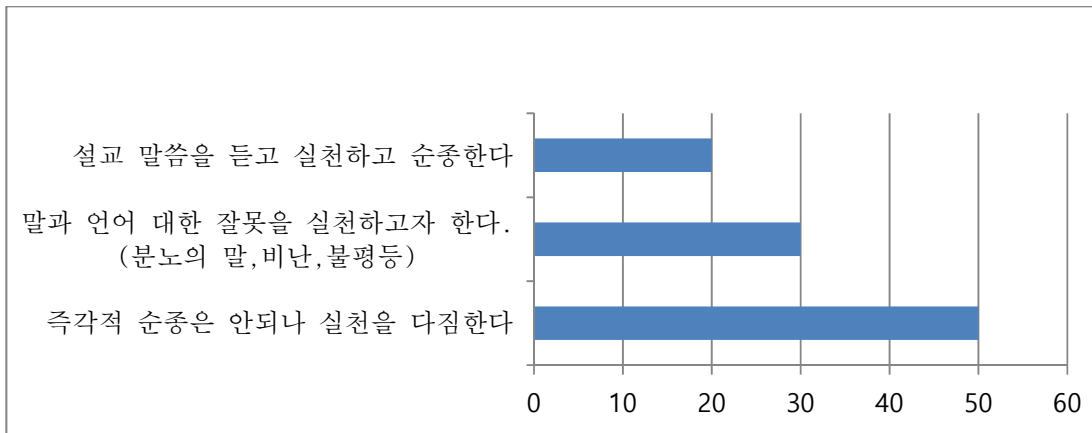
<표6>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의 중심주제인 제국과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맥락적인 이해에 대해서 ‘거의 연결된다’가 60%, ‘잘 연결된다’가 10%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면서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7>의 자유 의견처럼 성경통독후에 성경의 흐름과 맥을 잘 알고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통전적인 이해가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성경통독과 함께 새벽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설교하니 더욱 이해가 되고 좋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성경을 통독할 때에 재미있고, 소망과 힘이 생긴다고 응답하였다.

#### 설교와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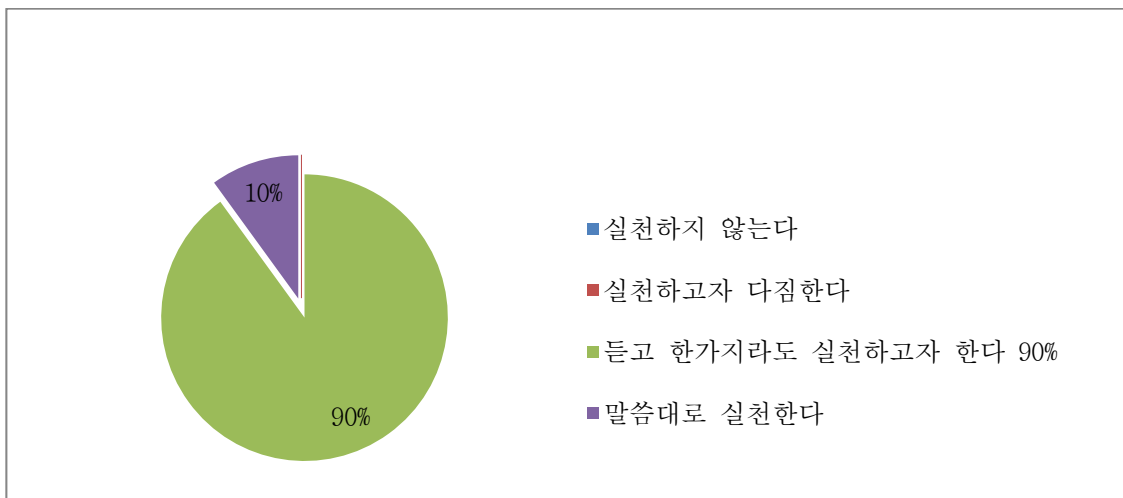
성경의 말씀은 이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데에도 유익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설교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다음은 설문을 통해서 실천에 대한 분석이다.

<표8> 설교를 듣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태도와 행동에 대한 서술



또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삶속에서 실천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은 다음과 같다.

<표9> 삶 속에서의 실천



분명한 것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자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통독을 통해서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설교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말과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 청중과 설교

요즘시대는 재미와 감동을 원하는 시대라고 한다. 재미있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끌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이끈다. 또한 그러면서도 무엇인가를 느끼고 싶어한다. 감동을 받고, 의미를 찾는 것이다. 매주일 성도들은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면 원하는 원하지 않든지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 다음은 ‘당신이 좋아하는 설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90%가 본문 중심의 설교라고 답을 했고, 10%만이 예화가 많고 쉬운 설교라고 답을 하였다.

그리고 ‘설교가 성경의 상황을 설명할 때 어떠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0%, ‘성경이야기는 지루하다’ 0%, ‘성경의 상황을 알수록 흥미로워진다’ 80%, ‘너무 재미 있고 또 듣고 싶다’ 20%로 응답하였다.

청중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알면 알수록 더욱 흥미롭고 재미 있어하고 또 듣고 싶고, 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한다. 설교자가 성경의 흐름과 맥을 잘 알고, 성경의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잘 알아서 설교한다면 청중들은 설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될 것이다.

#### 전체 평가

성경통독 프로젝트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성도들이 성경통독을 하면서 먼저 행복해 하는 것을 느꼈다. 또한 성도들이 성경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려운 마음에 혼자서는 성경통독을 하고 싶어도 시작하다가 실패하고 있었으나 온 교회 함께 성경을 통독하기에 동참하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다. 그러기에 2015년 한해동안 많은 성도들이 한 번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고 재미있어서 읽기도 하면서 읽고 싶은 열망들이 일어나서 저녁에 보던 TV를 끄고, 가정이 조용해졌다는 어느 성도님의 고백도 들을 수 있었다.

성경통독을 하면서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스스로 신앙적인 인식이 일어나고, 통전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통(通) 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번 성경을 읽는 가운데 행과 행 문단과 문단을 뛰어 넘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가? 를 느끼게 된다. 서양의 성경읽기 방법은 냉철한 이성으로 지식적이고 분석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의와 인과 신을 잃어버리고 문자적 조항만이 남아 있는 종교적인 신앙인들이 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적인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를 해부하듯 죽어있는 우리의 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로 읽고, 역사 순으로 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성경통독은 우리의 영을 살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한다.

둘째로 성경통독은 성경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게 해주었다. 제국과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주었다. 위에서 본 것처럼 3독이상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에게서 제국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잘 연결되고 이해가 되었다. 성경이 전체가 그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맥락적으로 이해가 될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다.

셋째 성경통독은 설교 이해를 돕는다. <표 8>에서 보여주듯이 90%이상

설교를 이해한다고 답한 성도들이 60%였다. 성경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바탕으로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가 더욱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게 된다. 성경을 맥락을 따라서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설교말씀이 목사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있게 다가올 것이다.

넷째는 성경통독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있게 다가오는 설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다. 이해된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오고 가슴에서 손과 발로 전달되어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성도들은 들은 말씀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자 다짐을 하고 실제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다. 성경통독은 설교를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영향을 미친다. 교회들마다 성경통독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더욱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한다.

## 제 VI 장

### 요약 및 결론

#### 요약 및 평가

필자는 앞에 서두에서 문제제기를 통해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분리되어 있고, 맥락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으며, 교리화되어 굳어 있고, 실천적이지 못하고, 개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통독의 성서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성경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읽혀지지 않을 때에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분리되고, 고립되고, 교리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종교행위로 변질되게 된다.

성경통독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설교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먼저, 성경통독이 우리의 시각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게 했다. 개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나와 가정이 하나가 되고, 나와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나와 민족이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내 개인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씀으로 들려진다. 복음이 내 가정과 온 누리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둘째, 성경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게 했다. 제국과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된다. 이 세상 나라가 강하고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 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그래서 더 말씀이 재미 있고 행복하고, 기뻐하였다.

셋째, 상황적 이해가 주어졌다. 설교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경의 말씀이 멀리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알면알수록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 어느 자매의 이야기처럼 설교를 들으면 졸립고 지루하였는데 성경통독을 하면서는 설교가 재미있어졌다고 했다. 이처럼 설교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넷째, 설교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자 다짐하고, 또한 실천해 갔다. 실제로 2015년 성경통독 프로젝트를 실행하고나서 주차장에서 섬기시는 주차 봉사를 하시는 성도가 “ 말씀대행진(성경통독 프로젝트) 때문인지 교인들이 착해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

마지막으로 관계적 이해가 생겨났다. 성경통독을 하면서 가정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된다. 저녁에 드라마를 보던 가족들이 TV시청을 멈추고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통독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였다. 이웃이 보이고, 연약한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주어진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도 일어났다. 내 개인적인 신앙에서 나와 우리, 민족과 모든 민족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성경통독은 성경과 설교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욱 성경통독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지속, 반복하여 통독할 때에 성도들의 신앙이 균형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가정과 민족과 모든 민족을 품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음을 확신하게 된다.

필자가 생각한 것보다 성도들은 성경통독을 좋아했고 행복해 했다. 또한 성경통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한국교회 가운데 성경통독의 바람이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성경이 읽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개인을 뛰어 넘어 가정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성도들로 자라게 될 것임을 기대하게 된다. 필자는 교회가 망설임없이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역사순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읽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적 편협함에서 벗어나 모든 민족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 부록 I. 역사순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 교재 매일 성경읽기표(1~3월)

1 월		2 월		3 월	
날짜	범위	날짜	범위	날짜	범위
1 일	창 1~2 장	1 일	출 39~40 장	1 일	신 5~6 장
2 일	창 3~5 장	2 일	레 1~5 장	2 일	신 7~9 장
3 일	창 6~9 장	3 일	레 6~7 장	3 일	신 10~11 장
4 일	창 10~11 장	4 일	레 8~10 장	4 일	신 12~14 장
5 일	창 12~14 장	5 일	레 11~13 장	5 일	신 15~17 장
6 일	창 15~17 장	6 일	레 14~15 장	6 일	신 18~21 장
7 일	창 18~21 장	7 일	레 16~17 장	7 일	신 22~26 장
8 일	창 22~24 장	8 일	레 18~20 장	8 일	신 27~28 장
9 일	창 25~27 장	9 일	레 21~22 장	9 일	신 29~30 장
10 일	창 28~30 장	10 일	레 23~25 장	10 일	신 31~32 장
11 일	창 31~33 장	11 일	레 26~27 장	11 일	신 33~34 장, 시 90 편
12 일	창 34~36 장	12 일	민 1~2 장	12 일	수 1~2 장
13 일	창 37~38 장	13 일	민 3~4 장	13 일	수 3~5 장
14 일	창 39~41 장	14 일	민 5~6 장	14 일	수 6~8 장
15 일	창 41~44 장	15 일	민 7~8 장	15 일	수 9~12 장
16 일	창 45~47 장	16 일	민 9~10:10	16 일	수 13~17 장

17 일	창 48~50 장	17 일	민 10:11~12 장	17 일	수 18~19 장
18 일	출 1~2 장	18 일	민 13~14 장	18 일	수 20~22 장
19 일	출 3~4 장	19 일	민 15~17 장	19 일	수 23~24 장
20 일	출 5~7 장	20 일	민 18~19 장	20 일	삿 1 장~2:10
21 일	출 8~10 장	21 일	민 20~21 장	21 일	삿 2:11~5 장
22 일	출 11~13 장	22 일	민 22~15 장	22 일	삿 6~7 장
23 일	출 14~15 장	23 일	민 26~27 장	23 일	삿 8~9 장
24 일	출 16~18 장	24 일	민 28~30 장	24 일	산 10~12 장
25 일	출 19~20 장	25 일	민 31~32 장	25 일	삿 13~16 장
26 일	출 21~23 장	26 일	민 33~36 장	26 일	삿 17~18 장
27 일	출 24~27 장	27 일	신 1~2 장	27 일	삿 20~21 장
28 일	출 28~29 장	28 일	신 3~4 장	28 일	룻 1~4 장
29 일	출 30~31 장			29 일	삼상 1~3 장
30 일	출 32~34 장			30 일	삼상 4~7 장
31 일	출 35~38 장			31 일	삼상 8~10 장

## 부록 Ⅱ.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 통독 매일 성경읽기표(4~6월)

4 월		5 월		6 월	
날짜	범위	날짜	범위	날짜	범위
1 일	삼상 11~12 장	1 일	잠 21~24 장	1 일	시 91~102 편
2 일	삼상 13~14 장	2 일	잠 25~29 장	2 일	시 103~106 편
3 일	삼상 15~16 장	3 일	잠 30~31 장	3 일	시 107~118 편
4 일	삼상 17~18 장	4 일	아 1~4 장	4 일	시 119 편
5 일	삼상 19 장, 시 59 편	5 일	아 5~8 장	5 일	시 120~134 편
6 일	삼상 20~21 장, 시 34 편	6 일	왕상 11 장	6 일	시 135~142 편
7 일	삼상 22 장, 시 52 편	7 일	전 1~3 장	7 일	시 143~150 편
8 일	삼상 23~24 장, 시 57 편	8 일	전 4~7 장	8 일	왕상 12~14 장
9 일	삼상 25~26 장, 시 54 편	9 일	전 8~12 장	9 일	왕상 15~16:20
10 일	삼상 27~31 장	10 일	욥 1~3 장	10 일	왕상 16:21~17 장
11 일	삼하 1~2 장	11 일	욥 4~7 장	11 일	왕상 18~19 장
12 일	삼하 3 장~5:5	12 일	욥 8~10 장	12 일	왕상 20~22 장
13 일	삼하 5:6~6 장	13 일	욥 11~14 장	13 일	왕하 1~2 장
14 일	삼하 7~10 장	14 일	욥 15~17 장	14 일	왕하 3~5 장

15 일	삼하 11~12 장, 시 51 편	15 일	읍 18~19 장	15 일	왕하 6~8 장
16 일	삼하 13~14 장	16 일	읍 20~21 장	16 일	왕하 9~10 장
17 일	삼하 15 장, 시 3 편	17 일	읍 22~24 장	17 일	왕하 11~14 장
18 일	삼하 16~17 장	18 일	읍 25~31 장	18 일	암 1~5 장
19 일	삼하 18~20 장	19 일	읍 32~37 장	19 일	암 6~9 장
20 일	삼하 21~22 장	20 일	읍 38~42 장	20 일	호 1~4 장
21 일	삼하 23~24 장	21 일	시 1~2, 4~9 편	21 일	호 5~9 장
22 일	왕상 1~2 장	22 일	시 10~18 편	22 일	호 10~14 장
23 일	왕상 3~4 장	23 일	시 19~27 편	23 일	은 1~4 장
24 일	왕상 5~7 장	24 일	시 28~33 편	24 일	왕하 15~16 장
25 일	왕상 8 장	25 일	시 35~41 편	25 일	왕하 17 장~18:12
26 일	왕상 9~10 장	26 일	시 42~50, 53 편	26 일	사 1~3 장
27 일	잠 1~5 장	27 일	시 55~56, 58, 60~66 편	27 일	사 4~7 장
28 일	잠 6~9 장	28 일	시 67~72 편	28 일	사 8~12 장
29 일	잠 10~15 장	29 일	시 73~78 편	29 일	사 13~17 장
30 일	잠 16~20 장	30 일	시 79~85 편	30 일	사 18~20 장
		31 일	시 86~89 편		

## 부록 Ⅲ.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 통독 매일 성경읽기표(7~9월)

7 월		8 월		9 월	
날짜	범위	날짜	범위	날짜	범위
1 일	사 21~24 장	1 일	렘 34~36 장	1 일	겔 4~7 장
2 일	사 25~29 장	2 일	렘 37~38 장	2 일	겔 8~11 장
3 일	사 30~35 장	3 일	왕하 25 장, 렘 39~41 장	3 일	겔 12~14 장
4 일	왕하 18~13~37, 사 36 장	4 일	렘 42~45 장	4 일	겔 15~17 장
5 일	왕하 19 장, 사 37 장	5 일	렘 46~48 장	5 일	겔 18~20 장
6 일	왕하 20 장, 사 38~39 장	6 일	렘 49~50 장	6 일	겔 21~22 장
7 일	사 40~42 장	7 일	렘 51~52 장	7 일	겔 23~24 장
8 일	사 43~45 장	8 일	애 1~2 장	8 일	겔 25~28 장
9 일	사 46~50 장	9 일	애 3~5 장	9 일	겔 29~32 장
10 일	사 51~55 장	10 일	읍 1 장	10 일	겔 33~35 장
11 일	사 56~59 장	11 일	대상 1~3 장	11 일	겔 36~37 장
12 일	사 60~63 장	12 일	대상 4~5 장	12 일	겔 38~39 장
13 일	사 64~66 장	13 일	대상 6~9 장	13 일	겔 40~41 장
14 일	미 1~3 장	14 일	대상 10~12 장	14 일	겔 42~43 장

15 일	미 4~7 장	15 일	대상 13~16 장	15 일	겔 44~46 장
16 일	왕하 21~23 장	16 일	대상 17~20 장	16 일	겔 47~48 장
17 일	습 1~3 장	17 일	대상 21~22 장	17 일	단 1~2 장
18 일	합 1~3 장	18 일	대상 23~26 장	18 일	단 3~4 장
19 일	나 1~3 장	19 일	대상 27~29 장	19 일	단 5~6 장
20 일	을 1~3 장	20 일	대하 1~4 장	20 일	단 7~8 장
21 일	왕하 24 장, 램 1~3 장	21 일	대하 5~7 장	21 일	단 10~12 장
22 일	램 4~6 장	22 일	대하 8~9 장	22 일	스 1~2 장
23 일	램 7~9 장	23 일	대하 10~13 장	23 일	스 3~4 장
24 일	램 10~13 장	24 일	대하 14~17 장	24 일	학 1~2 장
25 일	램 14~16 장	25 일	대하 18~22 장	25 일	속 1~6 장
26 일	램 17~20 장	26 일	대하 23~25 장	26 일	속 7~10 장
27 일	램 21~23 장	27 일	대하 26~28 장	27 일	속 11~14 장
28 일	램 24~25 장	28 일	대하 29~31 장	28 일	스 5~6 장
29 일	램 26~28 장	29 일	대하 32~33 장	29 일	에 1~5 장
30 일	램 29~31 장	30 일	대하 34~36 장	30 일	에 6~10 장
31 일	램 32~33 장	31 일	겔 1~3 장		



## 부록 IV.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 통독 매일 성경읽기표(10~12월)

10 월		11 월		12 월	
날짜	범위	날짜	범위	날짜	범위
1 일	스 7~8 장	1 일	눅 21~22 장	1 일	행 20:1~6, 롬 1~3 장
2 일	스 9~10 장	2 일	눅 23~24 장	2 일	롬 4~7 장
3 일	느 1~3 장	3 일	요 1~3 장	3 일	롬 8~11 장
4 일	느 4~7 장	4 일	요 4~6 장	4 일	롬 12~14 장
5 일	느 8~10 장	5 일	요 7~8 장	5 일	롬 15~16 장
6 일	느 11~13 장	6 일	요 9~11 장	6 일	행 20:7~23 장
7 일	말 1~4 장	7 일	요 12~13 장	7 일	행 24~26 장
8 일	마 1~4 장	8 일	요 14~15 장	8 일	행 27~28 장
9 일	마 5~7 장	9 일	요 16~17 장	9 일	엡 1~3 장
10 일	마 8~10 장	10 일	요 18~19 장	10 일	엡 4~6 장
11 일	마 11~13 장	11 일	요 20~21 장	11 일	빌 1~4 장
12 일	마 14~16 장	12 일	행 1~2 장	12 일	골 1~4 장
13 일	마 17~20 장	13 일	행 3~5 장	13 일	몬 1 장
14 일	마 21~23 장	14 일	행 6~9 장	14 일	딤후 1~6 장
15 일	마 24~25 장	15 일	행 10~12 장	15 일	딤후 1~3 장
16 일	마 26~28 장	16 일	행 13 장~15:35	16 일	딤후 1~4 장

17 일	막 1~3 장	17 일	행 15:36~18:22	17 일	히 1~4 장
18 일	막 4~6 장	18 일	살전 1~5 장	18 일	히 5~10 장
19 일	막 7~8 장	19 일	살후 1~3 장	19 일	히 11~13 장
20 일	막 9~10 장	20 일	갈 1~3 장	20 일	약 1~5 장
21 일	막 11~13 장	21 일	갈 4~6 장	21 일	벧전 1~5 장
22 일	막 14~16 장	22 일	행 18:23~19 장	22 일	벧후 1~3 장
23 일	눅 1~2 장	23 일	고전 1~4 장	23 일	유 1 장
24 일	눅 3~4 장	24 일	고전 5~8 장	24 일	요일 1~5 장
25 일	눅 5~6 장	25 일	고전 9~11 장	25 일	요이 1 장, 요삼 1 장
26 일	눅 7~8 장	26 일	고전 12~14 장	26 일	계 1~3 장
27 일	눅 9~10 장	27 일	고전 15~16 장	27 일	계 4~7 장
28 일	눅 11~13 장	28 일	고후 1~4 장	28 일	계 8~11 장
29 일	눅 14~16 장	29 일	고후 5~9 장	29 일	계 12~15 장
30 일	눅 17~18 장	30 일	고후 10~13 장	30 일	계 16~18 장
31 일	눅 19~20 장			31 일	계 19~22 장

부록 V. 성경통독(말씀대행진)을 진행하면서 듣는 성도들의 이야기

▶ 담임목사님이 제시하신 같은 본문을 여러번 읽는 방법이 좋았다. 새벽예배때 1번, 아침에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1번, 잠자기 전에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1번씩 읽어 올해 5번 통독을 목표로 읽고 있다(강\*\* 성도).

▶ 담임목사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너무 좋다. 새벽에 한 번,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을 읽는다. 같은 본문을 여러번 읽으니까 통독하면서 목상이 되어 좋다(김\*\* 권사).

▶ 밀린 성경읽기도 은혜: 새해부터 말씀대행진에 동참하기로 했으나 어물어물하는 사이 성경이 밀렸다. 그래서 5일동안 밀린 창세기를 10장씩 읽었다. 짧게 읽을 때에는 그 본문 내용만 생각했는데 밀린성경을 읽으니 성경의 흐름이 보여 좋았다. 그동안 잠깐 잠깐 들었던 성경 이야기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듯 하였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지키지 못하는 모습에서는 남자답지 못하다(본인 표현은 "찌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브라함만 그런가 했더니 부전자전 이삭도 찌질했다. 그렇게 찌질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게 신기했다(황\*\* 학생).

▶ 담임목사님이 10번 통독하신다는 이야기에 도전이 되었다. 교회와 노회일로 바쁘신 중에도 10번을 읽으시는데 나는 더 열심히 읽어야 하겠다는 생각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새벽예배에 한 번해서 총 13번을 목표로 세웠다. 이러한 각오로 읽다보니 20일만에 1독을 마칠 수 있었다.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읽으니까 전체 흐름이 보여 좋았다. 그동안 성경통독을 해왔지만 대부분 의무감으로 읽었다. 사실 이번에도 의무감으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성경의 맛이 느껴지고 정말 재미있다.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다.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의미를 이제서야 경험하고 있다(김\*\*).

▶ 초등학교 3년때부터 국어노트에 성경을 썼다. 한 장을 다 쓰고 나면 잘했다는 도장을 찍는 것이 즐거웠다. 이번에는 11월 7일 시작하여 1독을 마쳤다. 보통 한 해동안 3~4번 정도 통독한다. 읽어도 금방 내용을 잊어버리지만 콩나물에 물주는 것과 같다. 물을 다 빠져 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라듯이 내용은 잊혀져도 믿음은 자란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비결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읽으려 한다(나\*\*장로).

▶ 성경통독 말씀대행진의 폐해: 저녁이 되어도 집안이 조용해졌다. TV도 꺼지고, 가족들도 말이 없다. 서로 말수가 적어졌다. 모두 성경을 읽느라 가족 대화가 줄었다(\*\*\*)

▶ 지난 주에 심난한 일들이 많아 감정 조절이 어려웠는데, 정해진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맘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긴 한 주였습니다(이\*\*).

▶ 식구들이 모여 통독교재를 따라 매일 저녁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전도대상을 위한 기도에서 항상 막혔습니다. 식구들이 서로 이야기 하면서 전도대상을 정하고 나니 너무 마음에 기뻐했습니다. 지금은 전도대상자를 위해 어떻게 할지 식구들이 같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강\*\*).

▶ 2월 1일 초등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두 딸이 학교에 가야 하는데,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을 것 같아 성경통독학교에 참석했습니다. 학교에는 체험신청서를 냈구요. 자녀들이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김\*\*).

▶ 짧은 성경통독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함께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천국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말씀 실천으로 이 땅에 살면서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꼭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애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김\*\*).

▶ 주 안에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즐겁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한 성경통독 기회를 통해서 다시 믿음의 방패를 들어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세계에 다시 감동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

말씀을 쭉욱 통독하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부르시는데, 계속 머뭇거리고 등 돌리는 제 모습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이\*\*)

▶ 짧은 성경통독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함께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천국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말씀 실천으로 이 땅에 살면서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꼭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애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 딸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많이 졸았는데, 말씀대행진을 시작하고서는 안 졸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예습이 된 상태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니 설교가 더  
은혜가 됩니다(\*\*\*)

▶ 말씀을 읽고 있으니 이웃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나갈 때는  
이어폰 끼고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대행진 통해 말씀 읽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황\*\*)

▶ 이번 말씀대행진을 통해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성경말씀에 대한 이해와

감동이 처음 읽는 것 같이 새롭습니다. 말로만 듣던 꿀송이 같다고 하던 말씀들이 저한테도 느껴져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런 느낌으로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또한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 또한 잘 깨닫고 싶습니다(김\*\*).

▶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의 아담이나 노아 같은 수박 겉핥기 식의 지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자세하게 보게 되고,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새롭고 더 은혜로워졌습니다(\*\*\*)

▶ 말씀을 읽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배시간에 늦지 않도록 다짐했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구합니다(백\*\*)

▶ 말씀통독하면서 집에서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게 되어 하루하루가 지루할 틈이 없이 풍성한 은혜의 시간 속에 즐겁고 감사합니다(정\*\*)

▶ 새벽예배 때 말씀을 읽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 번 더 읽고 하루를 시작하니, 정말 하루가 즐겁고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새벽기도에 참석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김\*\* 집사)

▶ 말씀을 읽을 때 평소에는 깊이 있게 읽지 못하고 짧게 읽고 할 일을 하곤 했는데, 말씀대행진을 통해서는 말씀을 읽을 때 달고 오묘하게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읽으니, 장시간 읽으면서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읽게 되어 감사합니다(배\*\*)

▶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하니 은혜가 됩니다. 레위기가 전에는 어려웠는데, 새벽에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하니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양\*\*)

▶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먹어야 하는 약이 저와 맞지 않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의 강건함을 보여주셨고,

기도로 저를 위로하여 주셔서, 무사히 약을 먹고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경통독을 통해 말씀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박\*\*).

▶ 손주가 너무 말썽 피울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숨을 고른 후 하나님의 본이 되기 위해 부드럽게 말을 하려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노력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듯이 말씀을 읽고 이번 달 첫주에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절규하는 마지막 모세의 설교처럼 매주 담임목사님의 설교말씀이 제 마음을 눈물로 적셔줍니다(홍\*\* 권사)

▶ 말씀이 늘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불만, 짜증, 화 등이 조금 줄었습니다(주\*\*).  
말씀을 읽으며 많이 누우치고 또한 새벽기도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이\*\*)

▶ 남편이 하루에 소설책을 3권씩 읽어서 제가 늘 잔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선으로 읽기 시작했고, 저의 잔소리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집안 분위기는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말씀을 핸드폰에 저장해서 틈만 나면 보게 되고 그 어느때보다 말씀이 지루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달고 오묘합니다(김\*\*)

재미/손자들이 이번에는 군말없이 말씀대행진에 동참해 주니 정말 기뻐요(안\*\*)

▶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고, 가족과 관계가 더 화목해졌습니다(이\*\*).

▶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연결되고 그래서 더 은혜받고 있습니다. (정\*\*)

▶ 말씀대행진으로 인해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가끔 읽기만 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말씀을 읽고 점심 때 뜻을 생각하며 깊이

읽게 되어 은혜가 더 깊어졌습니다. 자기 전에도 다시 책을 펴 읽다 자니 이제야 비로소 신자가 된 듯 뿌듯합니다. 또 읽다보면 태신자가 생각나서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

▶ 말씀을 읽으면서 가정예배가 회복되었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래 동안 지방 근무로 예배에 참석못하던 남편이 주일예배 참석하게 되었구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 많은 은혜가 임함을 경험했습니다. 기도 회복, 말씀 회복, 눈물 회복. (박\*\*)

▶ 성경 속에 말씀들을 반복하여 읽고 듣고 쓰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어떠한 상황도 최상의 것으로 허락하심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늘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권\*\*).

▶ 성경통독을 매일 하면서 은혜가 충만해서 좋은데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밤에 잠을 잘 때 예전보다 더 깊이 폭 자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김\*\*).

▶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안\*\*).

▶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내 노래가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나의, 우리의 갈 길과 믿음을,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대행진을 실천하면서 은혜로 찬양으로 하루하루 행복함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모든 일들이 그냥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남편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교회 동역자들이 지금 내 곁에



늘 함께 있음을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은 말씀대행진 가운데 “말씀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표어가 응답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주님! 사랑합니다! (서\*\*)

▶ 말씀을 읽고 있으니 이웃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나갈 때는 이어폰 끼고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대행진 통해 말씀 읽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황\*\* 권사).

▶ 이번 말씀대행진을 통해서 그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성경말씀에 대한 이해와 감동이 처음 읽는 것 같이 새롭습니다. 말로만 듣던 꿀송이 같다고 하던 말씀들이 저한테도 느껴져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런 느낌으로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또한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 또한 잘 깨닫고 싶습니다(김순자집사).

▶ 말씀을 읽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배시간에 늦지 않도록 다짐했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구합니다(백\*\* 집사).

말씀통독하면서 집에서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게 되어 하루하루가 지루할 틈이 없이 풍성한 은혜의 시간 속에 즐겁고 감사합니다(정\*\* 집사).

▶ 말씀을 읽을 때 평소에는 깊이 있게 읽지 못하고 짧게 읽고 할 일을 하곤 했는데, 말씀대행진을 통해서 말씀 읽을 때 달고 오묘하게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읽으니, 장시간 읽으면서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읽게 되어 감사합니다(배\*\* 집사).

▶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하니 은혜가 됩니다. 레위기가 전에는 어려웠는데, 새벽에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하니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양\*\* 권사)

▶ 2월초 아산병원에서 용종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먹어야 하는 약이 저와 맞지 않아 먹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강권함을 보여주셨고, 기도로 저를 위로하여 주셔서, 무사히 약을 먹고 수술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경통독을 통해 말씀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박\*\*집사)

손주가 너무 말썽 피울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숨을 고른 후 하나님의 분이 되기 위해 부드럽게 말을 하려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노력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김\*\*집사).

▶ 말씀이 늘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불만, 짜증, 화 등이 조금 줄었습니다(주\*\*집사).

▶ 말씀을 읽으며 많이 누우치고 또한 새벽기도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이\*\*집사)

▶ 남편이 하루에 소설책을 3권씩 읽어서 제가 늘 잔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선으로 읽기 시작했고, 저의 잔소리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집안 분위기는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성도)

▶ 말씀을 핸드폰에 저장해서 틈만 나면 보게 되고 그 어느때보다 말씀이 지루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달고 오묘합니다(김\*\*권사)

▶ 손자들이 이번에는 군말없이 말씀대행진에 동참해 주니 정말 기뻐요(안\*\*집사)

▶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고, 가족과 관계가 더 화목해졌습니다(이\*\*권사)

▶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연결되고 그래서 더 은혜받고 있습니다(정\*\*집사)

▶ 말씀읽기를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말씀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 말씀대행진으로 인해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가끔 읽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말씀을 읽고 점심 때 뜻을 생각하며 깊이 읽게 되어 은혜가 더 깊어졌습니다. 자기 전에도 다시 책을 펴 읽다 자니 이제야 비로소 신자가 된 듯 뿌듯합니다. 또 읽다보면 태신자가 생각나서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 집안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말씀을 읽는 중에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1독을 하겠습니다(황\*\*집사)

▶ 말씀을 읽으면서 가정예배가 회복되었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래 동안 지방 근무로 예배에 참석못하던 남편이 주일예배 참석하게 되었구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 많은 은혜가 임함을 경험했습니다. 기도 회복, 말씀 회복, 눈물 회복(박\*\*권사)

▶ 성경 속에 말씀들을 반복하여 읽고 듣고 쓰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어떠한 상황도 최상의 것으로 허락하심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늘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권\*\*권사).

▶ 성경통독을 매일 하면서 은혜가 충만해서 좋는데 한가지 더 좋은 것은 밤에 잠을 잘 때 예전보다 더 깊이 푹 자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김\*\* 은퇴권사)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재미있는 것 하나 더 올립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구절을 보면서 아담은 웬지 잘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안\*\* 학생).

▶ 작년에는 큐티를 하지않았다는 정민이는 올해 말씀대행진을 하면서 한번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 엠티 중에도 큐티를 할 정도로 말씀묵상이 즐겁다고 합니다(홍\*\* 청년).

## 부록 VI. 설문지

## A. 일반질문

1. 당신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_\_\_\_\_ 세 )

2.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          (2) 여

3.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 1년 이하 (2) 1~3년 (3) 3~6년 (4) 6~9년 (5) 10년이상 (6) 모태신앙

4. 당신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1) 평신도    (2) 서리 집사    (3) 안수집사    (4) 권사    (5) 장로

## B. 통독관련 질문

5. 당신은 신앙생활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읽는 성경통독을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1) 1독    (2) 2~3독    (3) 4~5독    (4) 6~7독    (5) 7독 이상

6. 2015년 한 해 성경통독을 몇 번하셨습니까? (          번)

7. 성경통독을 하시면서 가장 깊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였습니까?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



---

8. 성경 통독후에 목사님의 설교중에 성경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1) 50% 이하 (2) 50~60% 정도 (3) 70~80% 정도 (4) 90% 이상

## C. 성경통독과 설교 이해에 관한 질문

9. 구약의 제국(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 목사가 설교할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 (1) 전혀 모른다. (2) 어느정도 이해한다. (3) 잘 이해한다.
10. 목사가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랑의 대해서 설교하실 때 구약성경에서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십니까?
- (1) 잘 연결된다. (2) 조금 연결된다. (3) 모르겠다. (4)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11.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부족함과 잘못이 생각나고, 내가 바꾸어야 할 태도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있으십니까?(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 
12.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삶의 실천하십니까?
- (1) 실천하지 않는다. (2) 들을 때만 실천하고자 다짐한다.
- (3) 듣고 한가지라도 실천하고자 한다. (4) 말씀대로 실천한다.
13. 설교자의 설교가 성경의 상황을 설명하며 설교할 때 어떠하십니까?
- (1)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2) 성경이야기 하면 지루하다.
- (3) 성경의 상황이 알 수로 흥미로워진다. (4) 너무 재미있고 또 듣고 싶다.
14. 당신이 설교를 좋아하는 설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1) 재미있는 설교 (2) 본문 중심 설교
- (3) 예화가 많고 쉬운 설교
- (4) 무겁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설교
15. 성경의 중심 주제는 제국과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의 중심 주제와 연결이 되십니까?
- (1) 전혀 몰랐다. (2) 조금 연결된다. (3) 거의 연결된다. (4) 잘 연결된다.
16. 성경통독후에 당신이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설교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자유롭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문지는 Drew 대학교 목회학 박사(D.min) 논문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참고 문헌

## 외국어서적

- Barclay, William. *Educational Ideals in the Ancient Worl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9.
- Brown, Francis & Edward Robinson. *The New Brown-Driver-Briggs-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MA: Hendrickson Pub, 1985.
- Croatto, Severino, J. *Biblical hermeneutics: toward a theory of reading as the production of meaning*. NY: Orbis Books, 1987.
- Epstein, Isidor. *The Jewish Way of Life*. London: Golden Press, 1946.
- Fee, Gordon D. and 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A Guide to Understanding the Bible, 2nd ed*. Grand Rapids: Zondervan, 1993.
- Keener, Craig S.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New Testament*. IL: InterVarsity press, 1993.
- Miller, Ron. *New Directions in Education; Selections from Holicstic Education Review*. VT: Holicstic Education press, 1991.
- Thayer, Joseph & James Strong.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1889.

## 번역서적

- Blair, William Newton. *Gold in Korea*. 김승태 역. *속히 예수 밋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서울: 두란노, 1995.
- Dumbrell, William, J. *The Search for Order: Biblical Eschatology in Focus*. 장세훈 역. *언약신학과 종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Duvall, J. Scott & J. Daniel Hays. *성경해석(Grasping God's Word)*. 류호영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 Forster, Werner, *From the Exile to Christ*, 문희석 역. *신구약 중간사*. 서울: 킨콜디아사, 1985.



- Goldsworhy, Graeme. *Christ-centred Biblical Theology: Hermeneutical Foundations and Principles*. 윤석인 역. 그리스도 중심 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 Kaiser, Walter C., Moises Silva. *(An)Introduction to Biblical Hermeneutics: the Earch for Meaning*. 강창현 역. 성경 해석학 개론. 서울: 은성, 1996.
- Klein, William W., Craig L. Blomberg, Robert L. Hubbard.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류호영 역. 성경해석학 총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Peterson, Eugene H. *Christ Plays in Ten Thousand Places*. 이종태, 양혜원 역. 현실, 하나님의 세계. 서울: IVP, 2006.
- Rhodes, Arnold B. *통독을 위한 성서 해설*. 문희석, 황성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 Sweet, Leonard. *Out of the question- into the mystery: [getting lost in the Godlife relationship]*. 윤종석 역. 관계의 영성. 서울: IVP, 2007.s
- Stein, Roberth H. 명종남 역. *예수의 비유*. 서울: 새순출판사, 1988.
- Wilmington, H. L. *Willmington`s Guide to the Bible*. 박광철 역. 종합성경연구III.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 국내서적

-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칼빈과 영성*. 서울: 고신대학교개혁주의학술원, 2010.
- 김영래. *기독교 교육과 삶*. 서울: 다산글방, 2002.
-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노우호.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성경통독집*. 서울: 하나, 1992.
- 박창환. *성경의 형성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서인석. *말씀으로 기도하기*. 서울: 성서와 함께, 2002.
-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0.

- 이덕주. *초기한국 기독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 이종성. *통전적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 이형기. *종교개혁사상사(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84.
-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통독원, 2009.
-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4.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 신학*. 서울: 통독원, 2008.
- 조병호. *쉬운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9.
-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역사순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대행진 1년 1독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4.
-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89.
- 허성준.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서울: 분도출판사, 2003.
- 현용수.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아라(2)*. 서울: 웨마, 2004.
- 현용수.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웨마 3*. 서울: 웨마, 2009.

## 논문, 잡지

- Campbell, Donald T. "Systematic Error on the Part of Human Links in Communication Systems." 1 *Information and Control*, 1958, 334-368.
- 류호준. "차세대를 위한 성경해석, 이렇게 제안한다." 3, *목회와 신학*, 1996, 111-119.
- 민종기. "교회안의 기복신앙을 청산하라." 126, *목회와 신학*, 1999, 67-73.
- 배성우. "성경 읽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92, *목회와 신학*, 2005, 146-149.
- 송제근. "언약적 관점에서 본 기복신앙의 위험성." 126, *목회와 신학*, 1999, 79-91.

송기태. “평신도들의 설교 수용태도 분석(Ⅱ).” 27, *목회와 신학*, 1991, 80-96.

안근조. “성경의 역사적 읽기와 문학적 읽기를 넘어서.” 192, *목회와 신학*, 2005, 186-193.

윤철호. “통전적 신학 방법론-춘계 이종성의 신학방법론을 중심으로.” 47, *장신논단*, 2015, 125-149.

Website.

대한성서공회 <http://www.bskorea.or.kr>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Kyoungtae Kang

Place and Date of Birth: Andong, South Korea, Aug.05, 1971

Parent's Names: Deokwon Kang and Cangok Park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Munsan High School</b> 22 Dangdong1no, Munsan-eup, Paju, Gyeonggido South Korea	Diploma	Feb. 20, 1990
Collegiate: <b>Seoul Jangsin University</b> 145, Gyeonganno 5-gil, Gwangju, Gyeonggido, South Korea.	Th. B	Feb. 13, 1997
Graduate: <b>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b> 25-1, Gwangjangno 5-gil, Gwangjin-gu, Seoul, South Korea.	M.div	Feb. 15, 2001
Ezra Bible Institute for Graduate Studies 33-7, Daneyangno 285-gil, Deogyang-gu, Goyang, Gyeonggido, South Korea	Th.M	Feb. 18, 2008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

Signature

Kyoungtae Kang

Name typed

May 6, 2016

Date